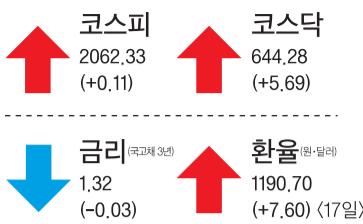




[해설]
삼성-LG전자
'8K TV' 정면 충돌
03



“콘텐츠 육성” 말로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에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콘텐츠 육성, 1조 지원”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실감콘텐츠 선도 투자로 시장 개척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콘텐츠는 문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산업이 됐다”며 “콘텐츠산업을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콘텐츠 인재캠퍼스 내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에 참석, “산업화·민주화 위에 콘텐츠·문화의 힘이 더해지면서 대한민국 자긍심은 한층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의 추가 대책이다.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및 신한류 확산 등 환경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찾은 콘텐츠 인재캠퍼스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들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동하도록 최신 제작 장비와 공간을 갖춘 요람으로 불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만든 콘텐츠가 세계를 행복하게 만든다. 외국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대화 소재가 K팝·K드라마다. 방문하는 나라마다 우리 노래를 따라 부르고, 우리 웹툰·캐릭터·드라마 등을 즐기는 젊은 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도 빼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콘텐츠가 국경을 넘어 ‘한류’를 만들어낸 지 20년, 처음엔 특

정지역에 잠깐 열풍이 거니 했는데 어느덧 우리는 지역·장르를 넘어 세계인들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나라가 됐다. 우리 콘텐츠산업 경쟁력도 높아졌다. 문화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가 됐고, 세계 7위 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분야로는 반도체 다음 가는 성장세”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콘텐츠 상품 100달러를 수출할 때 소비재·서비스를 비롯한 연관산업 수출이 그 두 배가 넘는 248달러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다”며 “실제로 작년 한 해 한류가 만들어낸 생산 유발 효과는 무려 20조원에 가깝다”고 말했다. 특히 “고용 면에서도 65만명이 넘는 인재가 콘텐츠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일자리 확대의 중요산업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1조원 이상의 투·융자 정책금융을 추가로 공급한다. 5세대(5G) 이동통신 퀄리콘텐츠인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실감콘텐츠에 대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로 초기 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K팝 전용 공연장 조성, 세종학당 확대 등 전 세계로 확산하는 한류를 소비재, 관광 등 연관산업의 성장과 연계하기 위한 전략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2022년 까지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 150조 원, 수출액 134억달러를 달성하고 7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한류에 따른 직접적인 소비재 수출을 50 억달러, 한류 관광객은 180만명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실제는 ‘기울어진 운동장’

거칠것 없는 넷플릭스 '첩첩 규제' 토종 OTT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규제가 통하지만 그렇지 않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이 정부 규제를 안 따르면 방법이 없다. 유럽처럼 세금을 내도록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기존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의 발목을 붙잡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 대한민국 전체 미디어 규제 수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 16일 열린 토종 온라인동영상(OTT) ‘웨이브’ 출범식에서는 서비스 출시도 전에 이 같이 규제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디어 박람’ 속에서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 미디어 시장 잠식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국내 사업자에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규제를 적용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망 사용료를 두고 인터넷 사업자(CP)들 또한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국내 사업자들은 통신·방송 전방위적으로 낡은 규제에 맥을 못 추는 상황에 빠졌다.

◆ 엉성한 규제에 ‘기울어진 운동장’ 가속화 우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CJ ENM과 JTBC도 자체 OTT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했다. 전날 지상파와 SK텔레콤의 ‘웨이브’ 서비스 발표에 이은 토종 OTT의 출범이다.

애플, 디즈니까지 국내 시장 진입을 앞둔 가운데 국내 미디어 사업자들이 힘을 모아 토종 OTT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국내 미디어 시장은 넷플릭스, 유



모델들이 18일 출범하는 OTT 서비스인 ‘웨이브’를 홍보하고 있다.

/콘텐츠웨이브

글로벌 사업자 국내시장 잠식 속
김성수, 통합방송법 수정안 발의
OTT, 유료방송 규제 적용 골자

망 사용료도 국내외 기업 역차별
폐복 年 100억, 네이버는 700억

튜브가 기세를 장악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마블·스타워즈 등을 보유한 월트디즈니와 HBO·워너브라더스 등을 가진 AT&T, 정보기술(IT) 공룡인 애플이 신규 OTT 서비스를 내놓는다.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가운데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글로벌 사업자들에는 국내 규제를 적용할 수 없어 오히려 국내 사업자가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넷플릭스 등 해외 업체들은 아무 규제를 받지 않는 데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해외 사업자들의 망 사용료는 대표적인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사례로 꼽힌다. 대용량 트래픽을 일으키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보다 적은 비용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페이스북은 연간 100억 원 정도의 망 사용료를 내고 구글(유튜브)이나 넷플릭스는 거의 무임승차 하는 반면, 네이버는 연간 700억원, 카카오는 300억원 정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 규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도 OTT와 같은 뉴미디어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TT 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하는 내용의 방송법전부개정안(통합방송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경쟁상황 평가, 이용약관 신고 의무, 심의 규정 등 유료방송 규제를 OTT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4면에 계속〉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產銀·輸銀, 고유 핵심기능에 역량 집중해야”

김용범 차관 ‘산·수 통합론’ 일축

“산업은행(산은)과 수출입은행(수은)은 고유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통합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확대거시경제 금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동결 산은 회장의 (통합 당위성) 언급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산·수 통합론’을 일축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2013년 마련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르면 산은은 대내 금융 특화기관이고 수은은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라며 “정책 금융기관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4면〉

전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기자들과 만나 “그분(이 회장)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셨지 않나”라며 “그건은 더는 논란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굳이 산은·수은 갈등을 일으켜서 우리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나”라며 “아무 의미없는 얘기”라고 했다. 이 회장의 갑작스런 통합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산은과 수은은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이 회장의 ‘사견(私見)’을 공개적으로 무시함에 따라 이번 ‘산·수 합병론’의 승자는 수은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영 기자 hong93@

“기술유출” vs “증거있나”… 정면충돌에 재계 우려

〈LG화학〉

〈SK이노베이션〉

SK-LG 분쟁

③ 양보없는 싸움, 파국 치닫나 (끝)

LG화학

“기술유출 인정, 재발방지 약속땐 소송전 접고 전면대화 나설 것”

SK이노베이션

“경력직 공채에 LG 경력자 몰려 기술유출 사실·증거 없었다”

‘이차전지 기술인력 빼가기’ 분쟁을 둘러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CEO간 회동 이후에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소송전을 지속할 분위기다. 그룹 총수나 정부가 나서기에 부적절한 사안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끌장을’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은 16일 서울 모처에서 만남을 가졌다. 공식적으로는 대화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회동 이후에도 양사 모두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상황이다.

2017년 SK이노베이션이 공고한 경력 채용.

다. 공시를 보면 LG화학은 평균 연봉이 6000만~8000만원 수준으로 SK이노베이션보다 절반 가까이 적은 수준이다.

LG화학이 어떤 기술을 빼돌렸는지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수주 잔고가 불과 3년여만에 14배 이상 증가했고, 연구개발 비용도 자사와 비교해 훨씬 적었다는 점만을 근거로 든 상황이다. 구체적인 기술이 밝혀지지 않으면 기술 유출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SK이노베이션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이 입사 원서에 주요 영업비밀을 기입하도록 유도했고, 입사 지원자들이 조직적으로 핵심기술 문서를 다운로드했다는 정황은 비교적 구체적이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은 이날 LG화학이 지난 5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소한 건으로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대상이 SK이노베이션 회사가 아닌 전직자를 대상으로 한 기밀 유출 혐의에 따른 조치로 전해지면서, SK이노베이션의 조직적인 기술 유출 혐의와는 무관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어떤 기술을 유출했는지를 밝히지도 않은 상태라 입장은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경력 공채에 LG화학 출신들이 워낙 많이 지원하는 만큼 특정 인원을 타겟팅할 필요도 없었다”며 입장은 명확히 했다.

소송전에서도 양사 모두 자신감을 드러내며 입장은 굽히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LG화학이 특허수가 훨씬 많다면 기선 제압에 나섰지만, SK이노베이션은 특히 질이 더 중요하다며 정면 대응했다.

일각에서는 총수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지만, 계열사 간 다툼에 그룹 총수가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각 그룹사도 아직은 계열사 판단에 맡겨둔다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외부에서 나서면 안 된다는 여론이 주를 이루면서 그룹이나 정부도 개입을 자제하는 모습”이라며

“결국 누군가 양보를 하지 않으면 소송전으로 끝장을 봐야하는데, 결국 누가 승자가 되더라도 국가적으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때문에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해어졌다는 추측에 힘이 실렸다.

‘화해의 열쇠’는 먼저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이 쥐고 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기술을 빼돌렸음을 인정하고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소송전을 접고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LG화학 관계자는 “산업계에 지식재산권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라며 “SK이노베이션이 기술 유출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와 보상안을 제시하는 게 대화의 첫번째 전제 조건임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기술 유출 사실이 없었고 뚜렷한 증거도 없다며 LG화학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단 SK이노베이션은 핵심 인력을 빼돌렸다는 주장에 ‘SK커리어’ 채용 공고를 제시했다. 모든 경력 직원을 공개적으로 채용한다며 LG화학 주장에 반박했다. 헤드헌터를 이용한 물질 접촉 등 사안도 증명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당시 LG화학 출신 지원자가 1000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LG화학은 상대적으로 업계에서 처우가 나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제조회사 아이원스를 방문해 생산설비 설명을 듣고 있다.

은성수, 취임 첫 현장은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 조성, M&A 등 통해 금융지원, 기술력 확보 도울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기업 현장으로 17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업체를 찾았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 금융 지원은 물론 관련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른바 ‘소·부·장 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이 소·부·장 산업을 든든하게 뒷받침 하겠다는 의미에 스스로를 ‘소·부·장 위원장’으로 불러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아이원스를 방문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현장간담회’를 갖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우리 경제와 산업의 기초 체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며 “소·부·장 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이원스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제조회사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당국 관계자를 비롯해 산업은행과 신용보증 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산업계, 학계가

모두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재정·정책금융기관·민간 자금을 바탕으로 우리 소·부·장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 펀드, 가칭 ‘소·부·장 펀드’의 조성도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다”며 “해외 인수합병(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를 통해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한 금융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에게는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자금을 지원 중이다.

지난달 5일부터 5주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은 일본 수출규제 연관기업 등에 대해 총 300건, 539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 위원장은 “금융 부문은 대일 의존도가 크지 않는 등 수출규제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향후 진행추이를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확고한 금융 안정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IPO 큰장… 롯데리츠·한화시스템 등 대기

올 상반기 상장기업 2곳 불과 “내달 투자심리 일부 회복될 듯”

올 하반기 대어급 기업공개(IPO)가 예고되면서 관련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공모 절차에 돌입하는 롯데리츠와 한화시스템, 지누스, 녹십자웰빙 등의 공모 예정액만 수조 원으로 추산되면서 IPO 투자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지 기대를 모은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롯데리츠가, 24일에는 녹십자웰빙이 각각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또 지누스와 한화시스템의 청구 접수도 완료된 상황이다. 대규모 공모청약이 이어지면서 IPO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올해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수는 단 2곳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코스피 상장사가 연평균 7~8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IPO 시장이 부진했다. 올해 상장한 기업의 시가총액도 3000억원에 못 미친다.

하지만 지누스의 상장심사승인이 이달내로 마무리되고 롯데리츠와 한화시스템이 내달 상장하면서 IPO 시장 규모

가 확대돼 유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롯데리츠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격을 확정한 뒤 일반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총 공모주식수는 8598만 4442주로 주당 공모 희망가는 4750원~5000원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최대 약 4299억원을 조달하며 조달된 공모자금은 롯데쇼핑으로부터 매입할 리테일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활용한다. 투자 대상은 롯데쇼핑의 백화점 4곳, 마트 4곳, 아울렛 2곳이다. 총 감정평가액만 약 1조 4900억원에 달한다.

지누스도 코스피 시장 최대어 종 하나로 꼽힌다. 지난 2005년 자본잠식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지누스는 캠핑 전문 업체에서 매트리스 전문

기업으로 주력사업을 변경하면서 재기에 성공했다. 현재 시가총액은 9984억 원이다. 올 상반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연내 상장 계획을 약속한 만큼 IPO를 자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계획이다.

지난달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한화시스템도 내달 상장을 예고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주주(52.91%), 에이치솔루션(14.48%)이 3대 주주로 있다. 에이치솔루션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자제 3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증권가에서는 한화시스템이 상장하면 기업 가치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헬스케어 전문 기업 녹십자웰빙은 최근 세계 최초로 암액질 치료제인 혁신 신약 ‘GCWB204’ 개발에 성공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해당 신약은 현재 유럽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녹십자웰빙은 이달 수요예측을 거쳐 내달 1~2일 공모 청약 후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계획이다. 공모 예정가는 9400~1만 1300원으로, 기업 가치는 최대 2000억 원대에 달한다. 공모 예정금액은 423억~509억 원이다.

이소중 SK증권 연구원은 “침체된 IPO 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 대어급 종목들의 공모 청약이 필요한 때”라며 “10월 대규모 공모 청약으로 IPO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공모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IPO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마약류 밀반입 5년간 2337건, 1.4조

대마 737건, 필로폰 515건 등

최근 5년간 밀반입 된 마약류가 1조 40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

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마약류 밀반입은 총 2337건이다. 액수로는 시가 1조 4315억 원이다.

마약류 밀반입 적발은 2015년 358건(2140억 원), 2016년 423건(887억 원),

2017년 476건(880억 원), 지난해 730건(8708억 원)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350건(1700억 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밀반입 된 마약류를 종류 별로 보면 대마가 7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로폰이 515건, 엑스터시(MDMA)가 182건, 코카인이 56건으로 뒤따랐다.

/석대성 기자 bigstar@

LG전자 ‘8K TV’ 놓고 정면 충돌

SAMSUNG
삼성전자

“화질선명도 등 LG 월등” vs “소모적 논쟁, 시장 키워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최신 TV의 해상도 기술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두 회사는 앞서 이달 초에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IT 전시회 ‘IFA 2019’에서 한차례 ‘원정 기싸움’을 벌인 바 있다. 이번에는 국내에서 같은 날 언론 설명회를 통해 상대방의 기술을 깎아내린 것이다.

17일 LG전자는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디스플레이 기술설명회’를 열고 8K 해상도 및 올레드 관련 기술에 대해 집중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LG전자 HE연구소장 남호준 전무는 “삼성전자의 QLED 8K TV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제디스플레이계측위원회(ICDM)의 해상도 규격에 한참 못 미친다. 이는 8K의 해상도를 기대하면서 8K TV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며 소비자에게 실망감을 줄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QLED 8K TV가 진정한 8K TV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LG전자는 이날 해상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TV 패널 구조를 직접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을 통해 자사의 8K TV가 삼성이 말하는 8K TV 보다 화질, 구조 등에서 월등하다고 주장했다.

ICDM의 표준규격에 따르면 해상도는 화소 수와 구분돼야 하고, 화소 수는 물론 화질선명도(CM)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진정한 8K TV라는 것이다. ICDM은 2012년부터 모든 디스플레이에 대한 해상도 측정법으로 화질선명도를 활용하고 있다.

ICDM은 해상도를 판단하는 측정 기준으로 화질선명도 값을 정의하고 화질선명도 50% 이상을 해상도 충족 조건



LG전자 HE연구소장 남호준 전무가 패널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판매중인 QLED TV에 적용된 퀸텀닷 시트를 들고 있다. /구서윤 기자

LG전자

국제적 CM 규격에 한참 못미쳐
현혹된 소비자에 실망 안길 것

으로 명시하고 있다. 화질선명도가 50%는 넘어야 사람이 눈으로 직접 봤을 때 인접한 화소들을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화질선명도는 디스플레이가 흰색과 검은색을 대비해 얼마나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값으로, 흰색과 검정색을 각각 명확하게 표현할수록 화질선명도 값이 커진다.

8K TV는 화소 수가 가로 7680개, 세로 4320개로 총 3300만개 화소 수는 물론 화질선명도 5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화질선명도가 50% 미만인 경우 화소 수가 8K에 해당하더라도 해상도는 8K라고 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LG전자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L

G전자의 8K TV(모델명: 75SM99)의 화질선명도는 90%인 반면 삼성전자의 QLED 8K TV(모델명: QN75Q950)의 화질선명도는 12%에 불과하다.

지금까지의 제품들은 픽셀 수를 해상도와 동일시해서 표현해도 화질선명도가 50%를 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출시된 몇몇 8K 제품은 픽셀 개수와 해상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우려가 커진다고 LG전자 측은 주장했다.

남전무는 “경쟁사(삼성전자)의 행보는 TV를 연구개발하고 있는 엔지니어 관점에서 안타깝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TV 시장에서 8K 시장을 주도하고 싶다면 모델만 늘릴 게 아니라 국제적 규격에 맞는 TV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이날 서울 R&D 캠퍼스에서 8K 화질 관련 긴급 설명회를 열고 8K TV 시장을 본격화하겠다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상무가 삼성 8K TV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CM으로 성능 판단은 적절치 않아
시스템 부분도 최적으로 조합돼야

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상무는 “8K 화질은 CM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밝기와 컬러볼륨 등 다른 광학적인 요소와 화질 처리 기술 등 시스템적인 부분이 최적으로 조합돼야 한다”며 “기준 정립을 위한 관련 업체 간 협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LG전자가 지적한 CM이 8K TV의 성능을 지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용 상무는 ‘LG가 지적한 CM값에 대한 수치가 맞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CM은 화질 척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CM값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8K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서 CM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8K 협회’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미래 시장을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QLED 8K를 타사 제품과 비교시연하며 8K 이미지, 동영상, 스트리밍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 독보적인 화질을 구현하고 있음을 시연했다. 8K 이미지 파일을 USB에 옮겨 TV에 띄운 결과, 삼성 QLED 8K에서는 작은 글씨도 선명하게 보이는 반면, 타사 TV에서는 글씨가 뭉개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동영상 시연에서는 표준코덱(H.265)으로 인코딩된 8K 동영상 시연에서 삼성 QLED 8K는 USB로 연결한 영상이든 스트리밍 영상이든 원활하게 재생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확진… 삼겹살 금값되나

확산 여부 따라 공급량 급감 우려
중국은 돼지고기 가격 40% 급등
외식·유통가 전국 확산 노심초사

당국 “병 걸린 돼지는 유통 안돼
국산 돼지고기 안전” 소비 당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하면서 돼지고기 파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다. 이에 유통·외식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물량 확보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매출 직격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다섯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에 따라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개 농장에서 3950두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했다.



서울 한 시내의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다. /뉴스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열병의 한 종류로 돼지가 감염될 경우 고열이나 식욕 결핍 등을 일으키는 동물 질으로, 폐사율 최대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이다. 국내에서는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된 감염원은 남은 음식물 특히 항공기나 선박의 주방 등에서 유래한 음식물 쓰레기다. 국제적으로 오염된 돼지고기를 포함한 음식찌꺼기를 돼지에게 주는 것이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4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생긴 이후 돼지고깃값이 40% 넘게 오르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고기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국내 발병이 확인되면서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외식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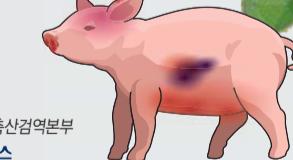
중국 전역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란?

- 돼지와 아생 뱃돼지에 발생하는 치명적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
- 전파성 강하고 증상 심각, 치사율 높음 (급성 감염 돼지 거의 100% 폐사)
- 현재 치료제 백신 없음 ■ 사람 감염 안됨

발생 원인

- 감염된 돼지 및 돼지 생산물의 이동
-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 아생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
- 농장관계자의 발병국 해외여행



자료/농림축산검역본부

연합뉴스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외식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서울 종로에서 삼겹살을 판매하는 음식점 주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고 해 걱정이 크다”며 “돼지고기를 찾는 손님이 줄어들고, 돼지고기 가격이 오를까 걱정이 된다”고 전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왔다는 뉴스를 접하고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언제에 무해화 하지만 돼지고기를 먹는 것도 조심스럽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산 돼지고기는 안전하다며 소비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라면서 “이 병에 걸린 돼지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은 국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백인웅 기자 parkiu7854@

문어발 산은, 4.3조 손실·22.6조 부채에도 ‘연봉 킹’

(3대 국책 은행 중)

이웃사촌 두 국책은행의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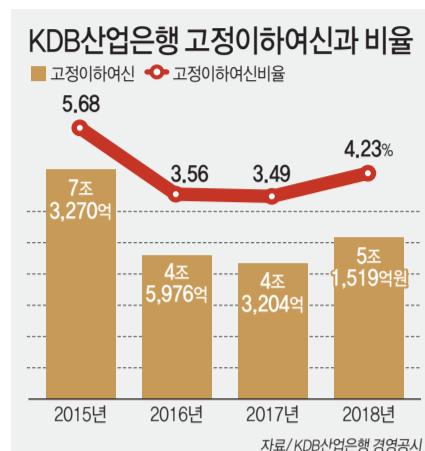
③ 산은, 실적 부진에도 연봉 ‘高高’(꼴)

투자 기업 지난해 기준 총 208곳 평가 손실 투자처 31곳, 전체 15% 부채 규모 3대 국책은행 중 2번째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최근 산업은행(이하 산은)과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합병론을 제기하면서 산은의 경영능력 부족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산은의 핵심 과제인 기업 구조조정과 창업·벤처 기업 지원 실적은 저조한 반면, 재무건전성은 악화됐기 때문이다. 산은은 부진한 실적에도 임직원의 연봉이 3대 국책은행(기은·수은·산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 핵심과제 실적은 ‘미진’

지난 8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 따르면 산은이 지분 보유나 출자 등의 형태로 투자한 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총 208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장부상 평가 손실이 난 투자처는 모두 31곳으로 전체의 1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대출금의 출자전환 및 회사에 대한 직접투자 등으로 보유하게 된 25조4309억원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주식 중 4조3242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산은은 부실기업 경영 정상화와 더불어 벤처 및 중소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기존 채권의 출자전환이나 직접투자를 통해 지분을 취득해 출자회사로 관리하고 있다. 출자회사가 부실화 될 경

우 투자금 회수 지연·손실 등으로 산은의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이 저하되고, 나아가 산은이 타 분야에 사용해야 할 정책금융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산은 출자회사의 주식 손실이 발생한 이유로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손실 발생, 해외 현지법인 투자 미숙, 투자시점에서의 추정 대비 수익 저조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산은이 다양한 출자회사를 관리하기 위해선 해당 출자회사 각각에 대한 재무적·영업적·사업적 측면 등에서 다방면의 검토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산은의 지원 실적도 미흡하다. 올해 6월까지 총 261회가 열린 KDB넥스트라운드의 경우 944개 기업의 투자설명회 중 168개 기업만이 8700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거뒀다. 10개 기업 중 1~2개 기업의 투자 유치만 이뤄진 셈이다. 이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IR라운드의 횟수와 참여기업, 실제 투자액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2016년 22개사, 2017년 44개사에 이어 지난해 64개사에 투자를 유치하며 꾸준

히 실적을 올리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건전성 악화에도 임직원 연봉은 ‘高高’

한편 산은의 재무건전성은 부실채권이 쌓이면서 악화되고 있다. 산업은행의 지난해 말 부채는 22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4000억원 증가했으나, 부채 규모는 3대 국책은행 중 기업은행에 이어 두번째로 크다.

산은의 지난해 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은 4.23%로 2017년보다 0.74%포인트 증가해, 3대 국책은행 중 유일한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동안 수은과 기은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1.7%포인트, 0.04%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산은이 정책금융으로써 특정기업에 거액여신을 보유하고 있었고,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들이 지난해 말 고정여신으로 분류되면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올라간 것”이라며 “신용포트풀리오 강화 등을 통해 건전성을 개선시키고 있어 연말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마무리가 되고나면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의 해외점포 또한 높은 부채비율과 취약한 리스크 관리로 당국

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은 산은 렌더지점과 홍콩지점의 자산규모 대비 미흡한 내부통제력 및 위험자산 증가에 대한 리스크 관리 부실을 이유로 각각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반면 산은의 임직원 연봉은 3대 국책은행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지난해 산은의 직원 평균연봉은 1억548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수은 임직원이 평균 1억238만원, 기은 임직원이 평균 1억154만원을 받았다.

한편 은행수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산·수 합병론은) 이 회장이 사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산은과 수은이 힘을 합친다는 것이 두 기관 간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산은과 수은이 더 이상 둘어서 회자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다”고 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웨이브(wave)’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점등 포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우디 피폭에 외환 출렁… 환율 1200원대 ‘코앞’

전일보다 7.6원 오른 1190.7원 마감 국제유가 불안 가능성 리스크로 두각

지난달 급등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이 대외 악재가 누그러지면서 한 달 반 만에 1180원대로 하락(원화 가치 상승)하는 듯하더니 하루 만에 1190원대로 다시 급등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국제유기가 급등하고 뉴욕증시가 급락하는 등 글로벌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이다.

1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83.1원)보다 7.6원 오른 1190.7원에 마감했다. 전날 1180원 대를 기록한 이후 하루 만에 다시 1190원대로 오른 것이다.

지난 16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9원 내린 1183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 1180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1일(1188.5원)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3일 1215.6원에 마감한 것에 비하면 약 2주 만에 30원이 넘게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는 역외시장에서 먼저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물은 1178.75원에 최종 호가되면서 1180원을 밑돌았다.

추석 연휴로 국내 금융시장이 휴장하는 동안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 등이 호재로 작용하며 위험회피 심리가 누그러진 영향이 커졌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는 것도 원화 강세로 나타났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역내 시장은행이 ECB에 자금을 예치할 때 적용하는 ‘예금금리’를 종전 -0.4%에서 -0.5%로 낮췄다. 오는 17~18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코스피가 0.11포인트 상승한 2,062.33으로 장을 마감한 17일 오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FOMC)와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화 강세 흐름은 하루를 버티지 못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폭등하고 뉴욕증시는 급락하는 등 악재가 닥치면서다.

16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2.70포인트(0.52%) 하락한 2만7076.8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9.43포인트(0.31%) 내린 2997.9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3.17포인트(0.28%) 하락한 8153.54에 장을 마감했다.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주요 시설이 무인기 공격으로 사우디 산유량의 절반, 전 세계 공급량의 5%에 각각 해당하는 하루 570만 배럴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4.7% (8.05달러) 뛴 62.90달러에 장을 마감했

다. 브렌트유는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전장 대비 19.5% 폭등하기도 했다.

외환시장에서는 당분간 환율의 변동성이 작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로서는 사우디의 시설복구가 얼마나 걸릴지는 물론 미국 등의 보복공격 여부에 따라 유가가 더 큰 폭의 급등을 지속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겉힐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미·중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종전이 아닌 휴전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까지 미·중 무역협상은 순조롭게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하반기부터 미·중 무역분쟁은 격화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1220원대까지 급등한 바 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점도 악재로 꼽힌다. 중국 경제가 부진하면 위안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위안화와 동조화 현상으로 있는 원화도 약세를 띠게 된다.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연 6%대 초반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희주 기자

손발 뮤인 채 글로벌 공룡과 경쟁

» 1면 ‘거칠것 없는…’ 서 계속

문제는 이런 법안이 토종 OTT 서비스에만 적용돼 글로벌 사업자들과 역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업체들은 규제에 밭이 뮤이지만 해외 업체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것. 게다가 가입자 규모, 매출 등 데이터도 정확하지 않는 시점에서 유료방송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를 국내 규제 틀 안에 포함하더라도 말을 듣지 않아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내 OTT가 규제의 무게를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다”며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KT도 ‘합산규제’에 고착화

방송통신 융합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기존 유료방송 사업자들도 규제에 신음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KT는 합산규제로 인해 인수·합병(M&A)이 녹록치 않다.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합산 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 3분의 1(33%)을 넘을 없도록 한 규제로 지난해 6월 일몰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일몰 뒤 재도입 등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지 못해 고착 상태에 빠지고 있다. KT의 경우 딜라이브 등 유료방송

사업자를 인수하면 점유율 33%를 넘어 합산규제의 빗에 걸리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를 재도입 하느냐 마느냐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중요치 않은 문제”라며 “글로벌 사업자들이 들어오고 코드커팅(시청자가 뉴미디어로 이동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규제를 열어주고 자율경쟁하도록 풀어줘도 통할까 말까한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규제 개선 강조한 과기정통부·방통위…‘정부 간섭 최소화해야’

이를 주관하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이후 이러한 국내외 역차별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내비쳤다.

최 장관은 지난 16일 웨이브 출범식에서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이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시장 경쟁을 제약하는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도 “미디어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간의 상호협력을 지원하고 융합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미디어의 ‘공공성’은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의 ‘혁신성’이 미디어 생태계 전체에 고루 스며도록 하겠다”고 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김나인 기자 silknii@

Sh수협銀, 글로벌 첫 사업 '미얀마 소액대출' 스타트

미얀마 현지 MFI 법인 설립

15세 이상 은행계좌 보유율 22%
낙후된 금융산업 인프라구축 절실

이동빈 행장 "고객 신뢰 최우선"
수산기술 전파 등 영역 확대 추진

Sh수협은행이 야심차게 준비한 글로벌 진출 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Sh수협은행은 지난 16일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서 소액대출(Micro Finance Institution·MFI) 법인인 '수협 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법인장 이명섭)' 설립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지난 7월 31일 미얀마 정부로부터 현지 MFI 법인 수협 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의 설립과 영업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 빤마나 본점을 중심으로 레위와 딱끈 두 곳에 영업점을 개설해 소액대출 영업을 준비해



Sh수협은행은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 소액대출(Micro Finance Institution, MFI) 법인 '수협 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를 설립하고 지난 16일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동빈 수협은행장(두번째 줄 오른쪽 다섯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성이 참석해 수협 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이동빈 행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진심을 담아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을 펼쳐 달라"고 당부하고 "이를 위해선 미얀마의 법규와 문화를 준수하고, 각종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고객에 대한 밀착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미얀마는 해안선이 2000km에 달하는 만큼 현지법인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이후 수협 중앙회와 손잡고 해안지역으로 영업력을 확대해 선진 수산기술을 전파하고 선박대출 등 해양수산금융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며 "더불어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으로 글로벌 거점을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왔다.

신(新)남방 지역에 남은 '마지막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미얀마는 지난 2011년 민간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개방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개발 계획과 맞물려 외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른 금융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15세 이상 인구의 은행 계좌 보유율이 22% 수준에 그칠 정도로 금융산업이 낙후된 상태다. 특히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금리가 월 10~15% 수준인 사금융시장을 이용하고

있어 미얀마에서 소액대출은 일종의 서민금융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날 소액대출 법인 설립 기념행사에는 이동빈 수협은행장을 비롯해 이상화 주 미얀마 대한민국 대사, 우 마웅마웅원 미얀마 기획재정부 부장관, 우 조나잉 미얀마 연방 FRD 국장 등 관계자 60

하나은행, AI '하이뱅킹' 서비스 고도화

개인화 마케팅 기반 마련

12월까지 한끼대첩 이벤트

KEB하나은행은 인공지능 하이(HAI)뱅킹 서비스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도화 프로젝트를 통해 손님 이용 프로세스 개선과 개인화 마케팅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와 함께 12월말까지 이벤트도 실시한다.

대화형 뱅킹 서비스인 하이뱅킹은 지난해 11월 챗봇을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됐다. 문자입력·음성입력·카메라활영을 통해 손님의 각종 금융거래 요청을 인공지능 금융비서 'HAI'가 문자 및 음성으로 답변한다.

이번 서비스 고도화로 가입 및 인증 프로세스를 간소화해 챗봇에서 직접 하이뱅킹을 쉽고 편리하게 가입하고, 간편이체를 위한 별칭등록을 대화를 통해 등록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KEB하나은행의 환전지갑과 동일하게 환전거래 시 거래 가능 통화를 21개까지 확대하고, 보관 및 재환전까지 챗봇과 대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이체거래 및 공과금 납부시에는 보안카드·OTP입력 절차 없이 거래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한편 고도화에 맞춰 오는 12월말까지 '새로워진 하이와 함께하는 한끼대첩 이벤트'도 실시한다. 하이뱅킹으로 예·적금 가입, 세금납부, 송금, 외화환전 등 종족하는 조건에 따라 추첨을 통해 최대 20만 하나머니 등의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하며, 대화(거래)를 많이 한 손님 대상으로 5000 하나머니를 1000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은 빅데이터 플랫폼과 하이뱅킹을 연계해, 손님에게 챗봇을 통해 개인화된 알림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이를 통해 KEB하나은행은 챗봇 채널 기반의 마케팅 프로세스를 갖춰갈 계획이다. /홍민영 기자

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M' 내달 출시

금융·통신 결합 혁신 서비스 이달 임직원 시범 운영 시작

KB국민은행은 다음달 내놓는 가장 이동통신망(MVNO)서비스 브랜드명을 '리브(Liiv) M'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의 MVNO 기반 서비스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바 있다.

금융권의 첫 알뜰폰으로 불리는 '리브M'은 이달 임직원 시범 운영을 시작

으로 10월 중 대고객 론칭 예정이며,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브랜드명 '리브M'의 'M'은 ▲온라인 금융거래의 간소화를 만들고(Make) ▲ 고객에게 최고의(Most) 서비스를 선사하며 ▲더 많은(More) 소비자 경험과 혜택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리브(Liiv)는 KB국민은행의 디지털 뱅킹 브랜드다. '모바일에서 경험하는 금융라이프 스타일(Life-styling, Integrated, Interesting, Valuable)'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현재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종류별로 중도상환에 따른 기회손실이 다른 점을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보통 취급 후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과 달리 5년 이상 부과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1월부터는 대출종류별로 중도상환수수료율(상한 2%)을 차등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토록 한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도 최

우리금융, 글로벌 非대면 리테일 영업 강화

모바일뱅킹 앱 고도화 개발 착수 내년 상반기 중 베트남부터 확장

우리금융그룹이 비대면 채널 중심의 글로벌 리테일 사업 성장을 위해 글로벌 모바일뱅킹 앱 고도화 개발에 착수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7년 3월 베트남, 인도 등 국외 영업점을 대상으로 글로벌 모바일뱅킹 앱을 출시해 예·적금 가입 및 대출과 현지 디지털 기업 제휴를 통한 전자지갑 충전, QR 결제, 선불폰 요금 충전 등 각 국가에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글로벌 모바일뱅킹 고도화

화를 통해 고객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구현, 휴대전화를 훈들어 거래할 수 있는 모션뱅킹 등 사용자가 편리한 모바일 특화 금융 서비스와 여·수신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베트남 우리은행 모바일뱅킹 고도화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인도 등 국가로 확산될 예정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글로벌 해외 거점 국가인 베트남에서 디지털 금융을 활용한 리테일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베트남 우리은행은 현지 특화 모바일 신용대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바일 중심의 비대면 영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베트남 국가신용정보센터(CIC)의 신용정보 및 통신사 데이터를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로 분석한 개인신용평가 모형을 도입했다.

/홍민영 기자

저축은행, 내년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차등화

금감원, 불합리한 관행 개선 부과기간도 최대 3년 내 운영

저축은행이 내년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차등화하고, 부과기간도 줄인다. 이와 함께 그간 차주가 대부분 부담하던 담보신탁 수수료도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종류별로 중도상환에 따른 기회손실이 다른 점을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보통 취급 후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과 달리 5년 이상 부과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1월부터는 대출종류별로 중도상환수수료율(상한 2%)을 차등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토록 한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도 최

<담보신탁수수료 부담관행 개선 전·후 비교>

개선전		발생비용	개선후	
저축은행	차주		저축은행	차주
	○	등록면허세	○	
	○	지방교육세	○	
○	○	인지세	○	○
	○	등기신청 수수료	○	
	○	법무사 수수료**	○	
○		감정평가 수수료**	○	
	○	신탁보수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40	63.62	부담비용* 합계	100.12(+60.12)	3.5(△60.12)

*담보신탁대출 1억원 가정시 / **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기준표', 국토부 '감정평가수수료기준표' 참조

대 3년 내에서 운영토록 개선한다.

만약 A씨가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고, 1년 뒤 중도상환한다고 가정하자.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기존 2%에서 1.5%, 부과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차주 부담액은 기준 1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은 업권 전체 중도상환 수수료

절감액이 연간 4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중도상환 수수료율과 부과기간에 대한 고객안내도 강화한다. 상품설명서 등에 중도상환 수수료율과 부과기간을 차주가 직접 기재토록 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0영업일 전에 안내 문자도 발송토록 할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허창수의 현장경영… LNG 밸류체인 구축·발전산업 고도화

(GS그룹 회장)

보령 LNG터미널 방문 현장점검
GS 총 5.3GW의 발전용량 보유
국내 최대 민간발전 1위에 올라
“어려울 수록 현장이 강해야”

“안정적인 LNG공급을 통해 국내 민간 발전 1위를 확고히 다지자.”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17일 국내 최대 민간운영 액화천연가스(LNG) 인수 기지인 보령 LNG터미널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당부했다.

허 회장은 올해 5월 GS엔텍을 방문한 이후 두 번째로 국내 사업장을 찾아 현장경영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현장이 강해야 한다”는 허 회장의 평소 의지에 따른 것이다. 허 회장은 이 자리에서 “보령 LNG터미널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국내 에너지 산업에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LNG



17일 허창수 GS 회장이 충남 보령군에 위치한 보령 LNG터미널을 방문해 LNG 저장탱크 5호기 현장을 둘러보고 진척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보령 LNG터미널은 총 1조 4000억원이 투입된 국내 최대 민간 운영 LNG 인수기지다. GS의 자회사인 GS에너지가 안정적 LNG 확보를 위해 2006년부터 부지매입, 환경 영향평가, 건설계획

정부 승인 등을 주도한 사업으로 2013년 SK E&S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2017년 4년 여간의 건설 공사를 마치고 20만㎘의 규모의 LNG 저장탱크 3기와 연간 300만톤의 LNG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상업

가동을 시작했다.

올해 7월 저장탱크 4호기가 추가로 완공되면서 저장설비 총 80만㎘ 저장탱크 4기와 연간 약 400만 톤 상당의 LNG 처리 규모를 갖췄다. 또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연간 200만톤 추가 저장탱크 5~6호기 공사도 현재 진행중이다.

허 회장은 이날 정택근 GS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과 함께 1~4호기 가동 현황 및 LNG 하역 설비를 비롯한 저장 설비 등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 보고 받고, 현재 추가로 건설중인 5~6호기의 내·외부 등도 꼼꼼히 둘러보며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허 회장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이지만 GS가 추진하고 있는 LNG 사업과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선제적 투자를 지속해 국내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GS는 GS에너지, GS EPS, GS파워 등 LNG를 연료로 활용하는 발전자회사들간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자체 트레이딩 범위를 통한 LNG 도입에서부터 저장기지의 운영, 발전사업 및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LNG 밸류체인화를 구축하고 있다. GS는 발전자회사인 GS EPS의 LNG 복합 발전소를 비롯하여 GS E&R 등의 발전 용량을 더해 총 5.3GW의 발전용량을 보유해 국내 최대 민간발전 1위에 올라섰다.

앞으로도 허 회장은 지금까지 보여준 현장경영을 바탕으로 국내외 계열사의 생산, 판매와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해외 시장에도 직접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경영을 펼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홍현칠 삼성전자 서남아총괄 부사장이 지난달 20일 인도 벵갈루루 ‘삼성 오피라하우스’에서 하반기 현지시장 공략 첨병모델인 갤럭시노트10의 출시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갤노트10, 100만대 돌파… 역대 최단기록

삼성전자 출시 25일만에 성과
“전작 대비 2배 이상 빠른 속도”

삼성전자는 지난달 23일 출시한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10’의 국내 판매량이 16일 기준 100만대를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는 갤럭시S와 노트 시리즈를 합쳐 역대 최단기간인 출시 25일 만의 기록”이라며 “전작 대비 2배 이상 빠른 속도”라고 설명했다.

기존 최단 기록은 2017년에 출시된 갤럭시S8(37일)였다. 갤럭시S2(40일),

갤럭시S10(47일), 갤럭시노트8(49일), 갤럭시노트9(53일)가 뒤를 이었다.

갤럭시노트10은 노트 시리즈 최초로 일반·플러스 두 가지 모델을 출시하고, 전작과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출시 전 사전 판매량 역시 전작보다 2배 이상 많은 130만대를 기록했다.

갤럭시노트10과 갤럭시노트10플러스의 판매 비중은 각 37%, 63%로 집계됐다. 특히 6.3인치 크기의 갤럭시노트10 출시로 여성 고객 비중이 40%로 전작 대비 약 10% 증가했다.

/연합뉴스

“5G 시대에는 모든 학생에 동등한 기회를”

SKT-마스프레소 업무협약
미래교육 혁신 위한 활동 추진
양사 보유 ICT 기술·자원 활용

SK텔레콤이 교육 플랫폼 기업 마스프레소와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나선다.

SK텔레콤은 마스프레소와 ‘데이터 기술 활용, 교육 격차 해소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력에 따라 SK텔레콤과 마스프레소는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네트워크, 유통망 등 양사가 보유한 ICT 기술과 자원을 활용, 누구나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미래 교육 혁신을 위한 활동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스프레소는 인공지능 기반의 수학문제 풀이 애플리케이션(앱) ‘콴다’ 등 현재 보유 중인 교육 콘텐츠를 SK텔레콤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관련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SK

SK텔레콤 문갑인 스마트디바이스 본부장(왼쪽)과 마스프레소 이종흔 공동대표가 MOU 체결 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은 콘텐츠의 교육 콘텐츠의 마케팅 활동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콴다의 대표 기능은 ‘5초 풀이 검색’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면, 인공지능으로 문자와 수식을 인식 후 600만건의 문제 풀이 데이터에서 관련 풀이를 찾아 5초 내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만약 관련 풀이가 없다면 ‘1:1 질문답변’ 기능을 활용해 대학생 선생님으로부터 7분 내로 자세한 풀이를 제공받고 채팅을 통해 실시간 질의 응답도 할 수 있다.

2016년 2월 출시된 콘텐츠는 지난 7월 기준 누적 이용자수 350만명, 누적 이용 건수 2억건을 돌파했다. 앱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400만건이다. 국내 초·중·고 학생 수(2018년 기준 630만 명)를 고려할 때 3명 중 2명이 이용한 셈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SKT 플로, 스튜디오 음악당에 엑소 뛴다

1회차 엑소 멤버 첸 출연, 60분 방송

SK텔레콤은 자사 음악 플랫폼 ‘플로(FLO)’가 미스틱스토리와 함께 오리지널 콘텐츠 ‘스튜디오 음악당’을 론칭한다고 17일 밝혔다.

스튜디오 음악당은 보다 폭넓은 취향의 음악과 아티스트를 소개하려는 취지로 기획된 오리지널 콘텐츠다. 플로가 콘텐츠 총괄 기획과 제작지원을 맡고, 미스틱스토리가 콘텐츠 제작을 담당한다. SK브로드밴드 채널 ‘B tv’를 통해 방송된다.

스튜디오 음악당은 아티스트에게 가장 친숙한 공간인 녹음실에서 풀어나가는 음악 토크와 라이브 클립으로 구성



/플로

된다. 진행은 슈퍼주니어 김희철과 작사가 김이나, 음악평론가 배순탁이 공동으로 맡는다.

24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약 60분간 방송된다. 1회차에는 엑소의 첸이 출연해 세 명의 MC들과 함께 솔직하고, 유머 넘치는 음악 이야기를 펼친다.

/김나인 기자

CJ ENM-JTBC, OTT 플랫폼 서비스 ‘맞손’

OTT 합작법인으로 ‘웨이브’ 견제
‘티빙’ 기반 통합 OTT 플랫폼 구상

CJ ENM과 JTBC가 힘을 합쳐 통합 플랫폼을 내놓는다.

CJ ENM은 JTBC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합작법인 출범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8일 출시하는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의 통합 OTT 서비스 ‘웨이브’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인 것으로 해석된다.

CJ ENM과 JTBC는 내년 초까지 양사가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통합 서비스하는 합작법인(J

V)를 설립하고, ‘티빙(TVING)’을 기반으로 한 통합 OTT 플랫폼을 론칭하기로 합의했다. 합작법인(JV)은 CJ ENM이 1대 주주, JTBC가 2대 주주로 참여한다. 향후 양사는 JV를 통해 국내 OTT 플랫폼에 콘텐츠를 유통하게 된다.

양사는 합작법인을 통해 양사 콘텐츠 결합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추가 제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한다. 통합 OTT를 중심으로 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자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나인 기자

CJ ENM과 JTBC의 협력은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디즈니, AT&T 등 강력한 IP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도 이미 자체 OTT 서비스 시작을 발표하며 OTT 시장에서 차별화된 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양사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콘텐츠의 기획·제작 역량을 확보하고, 잘 만들어진 콘텐츠가 효과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는 타겟별 최적의 플랫폼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

한글자로 풀어본
사회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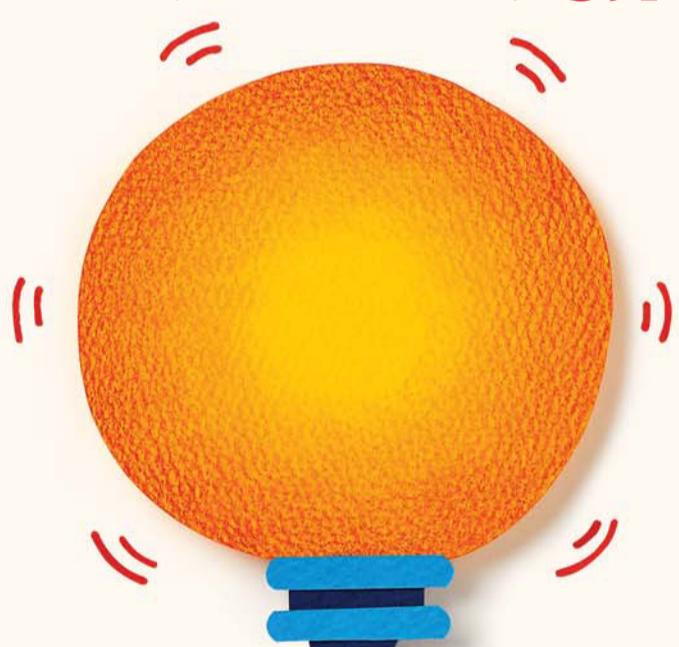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온

: 기업과 사회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들이
온전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능성의 스위치를 ON!
온 세상의 행복을 밝힐 수 있는 환경을 뜻함

다양한 사회적 가치로
'온' 세상의 행복을 'ON' 시킬 수 있도록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OK! SK



아시아나 차별화 전략 리스본 단독운항 개설

〈포르투갈〉

인천-리스본 직항 주2회
최신형 항공기 A350 투입
카이로, 멜버른 추가 운항



아시아나항공이 유럽의 명소 '포르투갈 리스본'에 주 2회(월·수요일) 단독운항한다.

17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포르투갈 리스본에 직항 노선으로 비행기를 띠우는 것은 국적 항공사 중에 아시아나항공이 처음이다. 운항기간은 오는 10월 28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 동계시즌 동안 부정기편으로 운영한다.

포르투갈 리스본 항공권은 개별 여행객은 물론 여행사 상품을 통한 구매가 모두 가능하다. 항공권과 여행 상품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모바일과 주요 여행사를 통해 예약과 발권 모두 가능하다.

또 해당 노선에는 '이코노미 스마티움' 좌석, 기내 무선인터넷(WI-FI),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선호도가 높은 최신형 항공기 A350이 투입돼 승객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도울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유럽 신규 노선 운항으로 유럽 지역 네트워크와 영업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잠재된 관광 노선을 지속 발굴해 더욱 차별화된 노선 경쟁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월부터 이집트 카이로와 호주 멜버른에도 직항 부정기편을 추가 운항할 예정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인천~리스본 부정기편 운항을 기념해 해당 노선의 A350 '이코노미 스마티움' 좌석 추가 요금을 10만원(편도 기준)으로 할인 판매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화토탈, 에틸렌 생산시설 증설 완료



한화토탈은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충남 대산공장 에틸렌 생산시설 증설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상업가동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한화토탈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약 29개월간 투자비 5400억원, 연인원 60만명을 투입하여 연간 에틸렌 31만톤, 프로필렌 13만톤 생산규모의 '가스 전용 분해시설(NCC)'을 완공했다. 이에 따라 한화토탈은 연간 에틸렌 140만톤, 프로필렌 106만톤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에틸렌, 프로필렌은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기초원료다.

한화토탈은 이번 증설로 연매출 5900억원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증설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기존 나프타 원료 기반의 분해시설(NCC) 확대가 아닌 '가스 전용 분해시설'을 통한 생산 확대라는 점이다. 한화토탈의 '가스 전용 분해시설'은 기존 나프타 대비 가격이 낮은 프로판

가스(LPG)를 원료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기존 NCC와 연결해 스텁, 전기, 용수 등 생산 인프라를 공유하는 설계 최적화로 통상적인 NCC 신설 대비 약 25% 투자비를 절감하는 등 경제성을 극대화한 설비다.

최근 석유화학시장은 북미 세일가스 기반의 애탄분해시설(ECC), 중국의 석탄화학시설(CTO/MTO) 등 저가원료 기반의 증설과 경기 침체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화토탈은 이번 증설로 규모의 경제와 원가경쟁력 제고로 치열한 경쟁의 파고를 넘는다는 복안이다.

/정연우 기자

현대제철, 'DJSI 월드' 2년 연속 선정

현대제철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2019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DJSI 월드' 지수에 선정됨과 동시에 철강산업군 '인더스트리 리더(최우수 기업)'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는 1999년 금융정보 제공기관인 미국의 S&P 다우존스인덱스와 글로벌 지

속가능경영평가 전문기관인 스위스로 베코샘과 공동으로 개발한 지표다. 매년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여 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재무성과, 사회책임, 환경영영 등을 평가해 지속가능경영평가 및 투자(SRI) 글로벌 표준으로 사용되며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지수로 인정받고 있다. /정연우 기자

미지엠 파업... 콜로라도 등 물량확보 비상

노조 4만8000명 파업 결정
한국지엠, 당분간 예의주시

한국지엠에 이어 미국지엠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콜로라도-트래버스 물량 확보에 대한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지엠은 두 차종 모두 미국지엠으로부터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픽업트럭인 콜로라도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래버스는 한국지엠이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신차로 미국 내에서도 인기 차종으로 알려졌다. 콜로라도의 경우 출시 2~3일만에 사전계약 500대를 기록했을 정도로 반응이 좋은 모델이다. 그러나 노조 파업이 한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터지며 물량확보에 대한 불안감이 돌고 있는 상태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콜로라도-트래버스의 판매실적은 10월경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물량확보 여부에 대해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래버스.



픽업트럭 콜로라도. /한국지엠

서는 아직은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콜로라도-트래버스의 국내 물량과 현재까지의 사전계약 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미국 내 지엠 공장에서 근무하는 전미자동차노조(UAW) 소속 노동자 약 4만8000명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UAW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 미국 노동계에 가

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지엠 노조의 이번 파업은 2007년 이후 12년만이다.

UAW와 지엠은 4년전 체결된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협약을 위해 수개월간 협상을 이어왔지만 임금, 의료보험, 고용안정, 수익 배분 등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업계는 미국 생산이 중단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의 지엠 차량 생산도 멈춰 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

수장 바꾼 LGD, 희망퇴직 돌입

임원·조직 축소, 조기 개편 실시
LCD 인력 중심 희망퇴직 검토

최근 실적 악화로 최고경영자(CEO)를 전격 교체한 LG디스플레이가 희망퇴직과 임원 축소 등을 통한 '조직 다이어트'에 나섰다.

17일 LG디스플레이에 따르면 이날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영환경 설명회를 열고 희망퇴직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은 2차 희망퇴직이다.

희망퇴직 대상은 근속 5년 차 이상의 기능직(생산직)이다. 희망 퇴직자에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고정급여의 36회치를 퇴직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23일부터 3주 간 희망자를 접수하고

다음 달 말까지 희망퇴직을 완료할 예정이다.

내리막에 접어든 LCD(액정표시장치) 사업 인력을 중심으로 추가 구조조정도 예고됐다. 회사 측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로의 전환 가속화를 고려해 LCD 인력을 중심으로 사무직에 대해서도 희망퇴직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또한 임원·담당 조직 축소를 골자로 하는 조기 조직개편도 실시한다. 경영의 속도감을 높이고 사업별 책임 경영체제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앞서 LG디스플레이는 중국발 LCD 공급 과잉에 따른 판가 하락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경영 실적이 악화하자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바 있다.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8.5세대 올레드 공장. /연합뉴스

회사 관계자는 "수익성이 급감하는 LCD에서 OLED로 사업구조 혁신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전체 여유인력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노사가 심도 있게 협의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가피하게 희망퇴직을 실시하지만 OLED 등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등 우수 인재를 중심으로 하는 채용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회계전문가 양성

세계 최대 공작기계 전시회서 출품
공장자동화 기기, 기술지원 솔루션

현대위아가 고성능 공작기계와 스마트팩토리로 공작기계 시장의 본토인 유럽 공략에 나선다.

현대위아는 16일(현지시간) 독일 하노버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작기계 전시회 'EMO 하노버 2019'에서 의료 산업용 공작기계 XF2000 등 총 10종의 공작기계를 출품한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총 736m²(약 223평)의 대규모 전시 공간에 공작기계와 함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공장자동화(FA) 기기, 기술지원 솔루션 등을 전시한다.

EMO는 전 세계 51개국에서 2700여 개업체와 약 15만명의 관람객이 찾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작기계 전시회로 오는 21일까지 열린다.

현대위아는 의료산업 수요가 높은 유럽시장에 맞춰, 독일에 위치한 유럽연구

센터에서 개발한 XF2000을 주력 모델로 내세웠다. XF2000은 '정밀성' 기공속도 '안정성'이 강점인 공작기계다.

현대위아는 자동차 부품사로서의 장점을 살린 자동차 부품 가공 자동화 라인도 선보인다. 또 머시닝센터 기종인 HS 6300과 공장자동화 시스템 PLS(Pallet Line System)를 연결해 파워트레인 부품 가공 자동화 라인도 전시한다.

PLS는 작업자가 직접 해야 하는 가공물의 이동과 적재를 자동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생산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제어하는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아이리스(iRiS)'도 전시한다.

/양성운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회계직무 관련 유관부서 실무자 72명을 대상으로 회계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회계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우조선에 따르면 이번 과정은 일반적인 사내 교육과는 달리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총 2학기로 구성된 이번 교육과정은 내년 4월말까지 8개월간 진행된다.

매일 4시간씩 매주 4일 집합교육을 통해 재무회계, 세무, 원가회계관리,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법률 관련 교육과정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문가 수준의 소양을 기를 수 있게 진행된다.

대우조선이 이 같은 교육에 나서게 된 이유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면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 인증수준이 상향돼 어느 때보다 회계 투명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져서다.

/정연우 기자

“주식보다 채권… 한국보단 글로벌 투자”

한투운용, TDF2050 출시 세미나

성주호 경희대 경영학 교수
“2750년 이전 인구소멸 문제지적”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은 노인 빈곤률이 높고 출산율이 낮은 문제 등으로 연금 수익률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데 현재와 같이 원리금이 90% 보장되는 체제에서는 수익률 향상이 어렵다”며 “투자규제를 풀어 목표 소득까지 연금 소득이 증가하는 새로 운 연금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성 교수는 17일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한국투자타깃데이트펀드(TDF) 알아서 2050펀드’ 출시를 기념해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의 LPG A 리스크로 인한 문제를 지적했다. L PGA는 장수(Longevity)·연금(Pension)·세대(Generation)·노화(Aging)를 따서 만든 용어다. 이는 여성 91세·남성 84세로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1위로 꼽히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 45.7%, 노인 재취업률 1위 등의 문제



토마스 폴락 아시아태평양 멀티에셋 솔루션 대표가 1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서 열린 세미나에서 ‘글로벌 시황 및 전망’으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와 노인부양비율 상승 속도 1위, 저조한 출산율로 2750년 이전 한국 인구가 소멸될 수 있다는 문제를 일컫는다.

성 교수는 “100세 시대, 가지 않은 그러나 가야 할 길” 주제 발표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연금 상품 수익률 제고에 중점을 둘 것이며 수수료 규제에도 나설 것”이라며 “현재 영미식 디폴트옵션과 네덜란드·독일·벨기에 등에서 도입된 집합적 확정기여(Collective DC, CDC) 방안 2가지가 논의되고 있는데 결국 2가지 방식이 다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폴트 옵션은 DC 퇴직연금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운용상품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법이며, CDC는 펀드매니저가 전략을 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토마스 폴락(Thomas Poullaouec) 아시아태평양 멀티에셋 솔루션 대표는 ‘글로벌 시황 및 전망’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각국 중앙은행들이 통화 긴축 정책에서 완화 정책으로 선회한 것은 세계 경기 활동이 둔화되는 흐름을 벗어나 반등할 것을 보여준다”며 “불확실

성도 낮아지고 경기 침체 공포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토마스 대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글로벌 무역과 구매관리자자수(PMIS)에 영향을 줬고, 전 세계 경기 활동을 둔화시켰다”며 “이 악재가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호재로 바뀌었고, 주식시장도 부양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는 현재의 불확실성을 이겨내는데 액티브 운용 및 종목 선정, 인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는 고평가된 미국 비중을 줄이는 대신 리스크가 더 높은 이머징 마켓 비중을 확대하고, 하이일드 채권 비중과 가치주 대비 성장주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는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 TDF 펀드를 운영하는 미국 내 3위 TDF 운용사인 티로프라이스는 전술적 포지셔닝 공개를 통해 주식보다 채권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이 회사는 한국 주식·채권보다 글로벌 주식·채권 비중을 확대할 것을 추천했는데, ‘한국투자TDF 알아서 펀드’에서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10% 내외로 국내 자산을 운용한다. 이 시리즈는 지난 달 말 기준 약 2800억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체운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v증권 디이제스트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아카데미 열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공개형 생애자산관리 교육프로그램인 ‘100세 시대 아카데미’ 9월 강좌를 글로벌 리츠를 주제로 오는 25일과 26일 개최한다. 이 행사는 25일 NH투자증권 본사 아트홀에서, 26일에는 SETE C 컨벤션 1홀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달 ‘100세 시대 아카데미’의 주제는 ‘글로벌 리츠시장 개요 및 투자전략’과 ‘싱가포르 거래소 상장리츠’다. 첫 번째 강좌에서는 글로벌 리츠 투자전략과 투자유망 섹터에 대해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센터 흥지환 선임연구원이 강의한다.

/체운정 기자



유안타증권

파생결합증권 3종 공모

유안타증권은 오는 20일까지 조기 상환형 ELS 등 파생결합증권 3종을 총 15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ELS 제 4379호는 만기 3년, 조기 상환주기 6개 월의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다. KOSPI 200, 유로스톡스(EuroStoxx)50, 니케이(NIKKEI)225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 가격의 92%(6개월), 90%(12개월), 85%(18·24개월) 80%(30개월), 65%(36개월) 이상일 때 연 4.50%의 수익률로 조기 또는 만기 상환된다. ELS 제 4380호는 만기 3년, 조기 상환주기 6개 월의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국내 기업 어쩌나’… 성장성·수익성 2분기도 악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발표
전년比 매출액 증가율 -1.1%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19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외부감사 적용 대상 법인기업들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증가율은 -1.1%로 집계됐다. 감소폭은 1분기(-2.4%)보다는 다소둔화됐지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기업들의 매출액증가율은 -1.7%, 비제조업은 -0.

3%를 나타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2%, 중소기업이 -0.6%의 매출액증가율을 보였다.

총자산은 1분기 대비 0.2% 늘어나는데 그쳐 작년 2분기 증가율(1.2%)에 못 미쳤다.

기업의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분기 5.2%로 전년 동기(7.7%) 대비 2.5%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9.5%에서 5.5%로 4.0%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도 5.0%에서 4.8%로 0.2%포인트 떨어졌다. 대기업은 7.8%에서 5.0%로, 중소기업은 7.3%에서 6.3%로 각각 2.8%포인트, 1.0%포인트씩 하락했다.

국내 기업들의 경영 안정성은 나아

졌으나 차입금 의존도는 상승했다.

부채비율(자기자본 대비 부채)은 1분기 86.7%에서 2분기 83.5%로 3.2% 포인트 하락했다. 1분기에는 부채로 잡혔던 미지급 배당금이 2분기 중 지급되면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냈다.

같은 기간 제조업은 69.0%에서 63.7%로, 비제조업은 119.0%에서 118.0%로 각각 5.3%포인트와 1.0%포인트씩 부채비율이 하락했다.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78.7%로 지난 1분기(83.1%)보다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은 104.8%에서 108.7%로 상승했다.

차입금 의존도(총자산에서 차입금 및 회사채가 차지하는 비중)는 2분기 24.1%로 1분기(22.8%)보다 상승했

다. 저금리로 회사채 발행 여건이 좋아진 영향이다.

같은 기간 제조업의 차입금의존도는 19.9%에서 20.3%로 상승했고 비제조업도 27.0%에서 29.0%로 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입금의존도도 각각 22.4%, 31.4%로 1분기보다 증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은이 상장기업(1799개사) 공시자료 외에 비상장외부감사대상 기업을 상대로 한 표본설문조사(조사표본 1965개사 중 1548개사 응답)를 토대로 2분기 기업경영 실적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대상 모집단은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 중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공공부문 등을 제외한 1만9884개사다. /김희주 기자 hj89@

민간상한제 앞두고 대단지 아파트 쏟아진다

약 5만5000여가구 공급

추석 이후 가을 분양시장에서 대단지 아파트가 대거 공급된다.

공급 규모는 추석 이후 10월까지 전국에서 5만5000여가구(임대제외)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10곳, 1만7000여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대단지 아파트가 수요자로부터 인기를 끄는 이유는 안정성을 꼽을 수 있다. 다른 아파트에 비해 규모가 크고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이 갖춰지

다 보니 인근 단지보다 시세가 높은 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7일 “대형건설사가 연초 계획 물량을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를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주)신영은오는 10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테크노폴리스 6블록에서 ‘청주테크노폴리스 지웰 푸르지오’ 59~99㎡ 1148가구를 분양한다.

단지에서 반경 약 1km 거리에 북청 주역(예정)이 2022년 개통 예정이다. 여기에 청주테크노폴리스 중심상업지

역(예정)이 도보권에 있으며, 현대백화점(충청점), 롯데아울렛(청주점), 지웰 시티몰, 홈플러스(동청주점), 청주성모병원 등도 가깝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595번지 일원에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64~115㎡ 1999가구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제역을 도보 5분 이면 갈 수 있는 조역세권 입지다. SR T를 통해 수서역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다.

또 단지 바로 앞에 이마트(평택점)가 운영 중에 있으며, 지제역 중심상권(예정)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도보권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도 예정돼 있다.

대림산업과 한화건설은 오는 10월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79~39번지 일대에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 39~84㎡ 1881가구를 공급한다. 단지 내에 대규모 조경시설과 중앙공원이 조성될 예정이고, 인근에 오량산과 유등천도 가깝다.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은 10월에 전북 전주시 흥제동 1가 166~1일원에 ‘힐스테이트 어울림 헤자’ 59~101㎡ 1248가구를 공급한다. 단지 앞에 백제대로가 있어 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 KTX 전주역을 쉽게 갈 수 있다. 단지 주변에는 시내버스노선 60여개가 정차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코스닥협회

제1회 코스닥 내부감사 포럼

코스닥협회는 코스닥기업 내부감사(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7일 서예의도 한국거래소 별관에서 ‘2019년도 제1차 코스닥내부감사포럼’을 개최한다.

회계제도 개혁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변경 내용이 주제다. 포럼에서는 먼저 ‘회계제도 개혁에 따른 내부감사의 역할 변화’란 주제로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김선문 팀장이 발표한다. 이어서 삼정회계법인 김유경 전무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변경 내용’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후 코스닥내부감사들과의 질의·토론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Q 르포 | 2022년 착공 GTX-B 노선 종착역 가보니

'서울관통' GTX에 부동산 출렁… 일부 '버블' 주의보

4·8호선 연장 겹쳐 부동산 회생 기대감

경기 남양주

GTX-B 노선이 12년 만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이 확정된 가운데 대표적인 수혜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히는 남양주 일대의 부동산 시장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과 연계한 지하철 4·8호선 확대 소식에 이어 지난 8월 GTX-B 노선 확정 발표가 정점을 찍은 것으로 진단했다.

지난 16일 오전 찾아간 경기도 남양주 평내호평역. GTX 노선의 마지막 페더스 맞춰진 남양주 일대는 GTX-B 노선을 앞세운 홍보문구가 길거리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GTX-B 노선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남양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란 기대감이 묻어났다. 역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던 부동산 중개업소들 어서니 그 분위기를 오롯이 느낄 수 있었다.

호평동의 부동산 중개업소 한 모씨(50대)는 "GTX-B 노선 발표 직후 갭투자 문의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주민들의 시세 문의가 늘었다"며 "GTX-B 노선 발표 직후 매도자의 매물 회수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평내호평 대장주로 불리는 KCC스위첸도 꾸준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입주 당시 2억 6000만 원 선이었던 KCC스위첸 전용

강남3구 주민들 시세문의 늘어 아파트값 시세차익 1억 원 '훌쩍' 문화시설 '판테온스퀘어' 호재도

59㎡는 지난 8월 3억 70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졌다고 했다.

다만 일부 단지를 제외한 다른 매물에는 인근 중개업자 모두가 고개를 갠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평내호평 일대는 개발 15년차에 들어섰다. 건물 노후화가 심하고 각종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지금도 별내·다산지구와는 2억 원 가량 시세 차이가 난다"며 한숨을 내뱉었다. 그는 또 "왕숙신도시 수요의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GTX가 통과하는 첫 정차역인 별내신도시의 경우 호가가 올라가고 있었다. 별내지구에 위치한 '별내아이파크 2차' 전용 84㎡가 지난 8월 6억 8000만 원에 거래돼 전년 동월 대비 약 1억 5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고 했다. '별내우미린'도 6억 원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7500만 원이 올랐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당고개역에서 진접을 잇는 지하철 4호



호평동 대장주 KCC스위첸. 2017년 입주 시작된 신축아파트는 현재 1억 원 이상의 웃돈이 얹어졌다.



경춘선 평내호평역사에 설치된 대형 현수막(위)과 거리 곳곳에 GTX-B 노선을 앞세운 홍보 전단지가 가득하다. /김상길 수습기자

선 연장선이 오는 2021년, 암사역에서

별내를 잇는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이 2023년 개통을 앞둔 만큼 해당 지역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도 "남양주 부동산은 별내·다산신도시가 이끌고 있다"며 "복합문화공간 '판테온스퀘어' 조성과 지하철 연장에 따른 교통호재가 맞물려 앞으로도 집값

상승이 기대된다"고 했다.

그동안 수도권의 변방으로 불리며 외면받았던 마석지구도 관심을 끌고 있었다. 마석역 인근 S공인 중개업소 관계자는 "GTX-B 노선 확정 이후 문의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도심 지역 뿐만 아니라 마석과 같은 외곽 지역에서도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수혜를 챙길 수 있을 것"이라

고 예상했다. 한편 서울 도심 한복판을 횡단하는 GTX-B 노선은 인천에서 여의도·서울역을 거쳐 남양주까지 총길이 80.1km 구간을 연결한다. 남양주 마석에서 청량리까지 약 17분이 소요될 전망으로 서울 도심 접근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르면 2022년 착공해 2025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김상길 수습기자 sayk6110@metroseoul.co.kr



청약열기 '후끈' 현장 분위기 '싸늘'… 정책이 만든 착시효과

분위기는 아파트 청약에서 먼저 감지됐다. 인천 센트럴파크역 인근 공인중개 사무소에서 확인해본 결과 지난 달 30일 분양된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는 일반 물량으로 풀린 258가구에 5만 건이 넘는 청약이 몰렸다. 206대 1의 경쟁률이다.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수요자 문의가 폭주했다고 했다. 같은 날 분양한 '송도 더샵 프라임 뷰(F20-1)' 역시 마찬가지. 38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약 4만 6000명이 몰렸다.

송도더샵 센트럴파크 3차 '인기'

258가구 청약에 5만 가구 몰려 GTX와 별개 호수공원 주변 호재 노른자 땅 제외 주변 집값 하락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송도신도시가 소속된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달 첫째 주 기준 0.04% 상승했다.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급과잉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으며 미분양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송도가 상황이 달라진 것일까.

현장에서 만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로부터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현장 분위기는 최근의 청약 열기와 다소 온도차이가 있었다.

송도신도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매매가 상승에 대해 일시적인 '버블(거품)'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정책과 최근 분양한 일부 아파트의 선전이 만들어낸 착시효과라는 것.

A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센트럴

파크나 프라임 뷰 모두 원래 높은 관심을 받던 아파트였고, GTX 노선과 별개로 중앙호수공원도 있고 국제학교도 개교를 앞두고 있는 등 서울과 멀다는 것만 제외하면 최상의 입지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송도 호수공원 인근의 노른자 땅을 제외하면 다른 곳 집값은 오히려 계속 하락세다"라고 말했다.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역시 비슷한 의견이었다. 그는 "최근 전체적인 평균 매매가가 상승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송도 8공구가 1만 3000가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오래된 2공구는 이미 매매가가 하락했다. 주택 공급 과잉으로 다른 곳 시세 역시 곧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GTX 역이 확정되면 인근 지역의 시세 상승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GTX 사업 얘기가 나온 지 벌써 5년이 넘었다. GTX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시세에 반영된 지 오래다"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는 "개통까지 8년이나 남았고, 시세가 더 오르기엔 정책 변화를 포함해 복합적인 변수들이 많다"고 밝혔다.

대부분 부동산 업자들은 GTX 노선이 실제로 개통되기까지 정부가 계획했던 2027년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비쳤다. 실제 GTX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데다 서울로의 이동 시간이 단축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시세에 반영됐다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태희 수습기자 alvin@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서 인천 송도신도시 일대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인천 국제업무지구역 인근에 아파트들이 대거 착공되고 있다. /송태희 수습기자

alton
DO THE BEST, BE THE STYLE

www.altonsports.com

고객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전기자전거

Ealton



E-ALTON ECONOVA

자전거 전용 도로 진입 가능 PAS 전용모델

- 삼성 SDI 리튬 이온 배터리 3-4 시간 완충
- 완충 시 60km 주행 가능
- 전국 A/S망 구축



“日 석탄재 안쓴다” 큰 소리… 시멘트社 해법 없어 골머리

운송·보관 두고 해법마련 고민
석탄재 매립이 운반보다 저렴
별도의 운반비 부담이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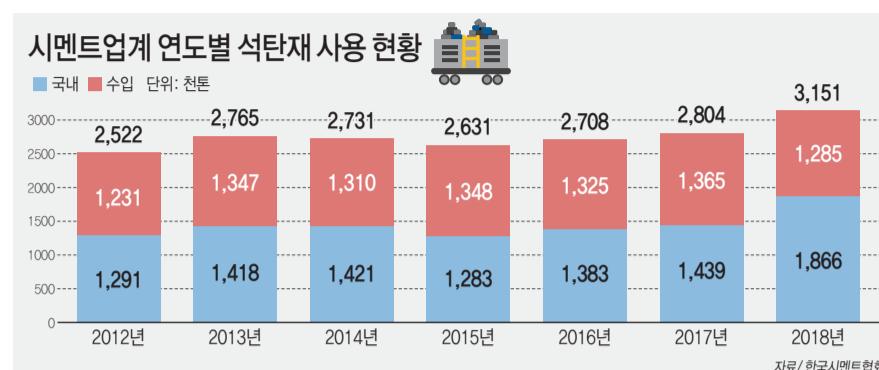
시멘트업계가 시멘트 생산시 사용하던 일본산 석탄재 대신 국산 석탄재로 대체하거나 다른 원료를 찾기로 했지만 근본적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아보인다.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나와 버려지는 석탄재가 그동안 시멘트회사들이 수입한 일본산 석탄재의 양보다 훨씬 많지만 시멘트공장으로 운반하는 비용보다 차라리 매립하는 것이 싸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운반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도 문제다.

게다가 화력발전소 가동이 많아 석탄재 배출이 많은 겨울철은 시멘트 생산 주기로 볼 때는 비수기여서 석탄재 수요가 많은 봄·가을까지 이를 보관하는 것도 쉽지 않다.

또 시멘트회사들이 찾고 있는 석탄재 대체재란 결국 과거 시멘트 제조 공정에 쓰던 천연점토여서 관련 광산 추가 개발을 위한 환경 문제가 대두될 우려도 있다.

2002년부터 국내에 들여온 일본산 석탄재는 지난해의 경우 130만톤(t)에 다소 못미쳤다. 이들 석탄재는 해안에



공장을 두고 있는 쌍용양회(동해), 삼표 시멘트(삼척), 한라시멘트(옥계), 한일 시멘트(평택항 이용)에서 시멘트 제조에 사용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한국시멘트협회가 국내산 석탄재 사용을 점차 늘리고, 대체원료 확보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일본산 석탄재를 쓰던 회사들은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환경부가 지난달 초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강화를 발표한 이후 이들 시멘트사는 일본산 시멘트 수입 통관에 적개는 열흘에서 많개는 보름 정도를 기다려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 강화방침을 내건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에 대해 분기별로 진행하던 방사능 검사를 전수조사로 바꾸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석탄재 운반선은

보통 4000t급으로 약적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일본에서 들어와 바로 바로 공장으로 운반이 가능했지만 이번 정부의 관리 강화 이후 장기간 항구에 정박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통상적으로 쌓아놓는 석탄재 재고량은 최대 열흘치가 전부인데 자칫 생산 공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주석 직전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우려해 일본산 석탄재 방사능 검사기간을 4주에서 2주내로 단축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석탄재 재고가 한정돼 있는 업체들 입장에선 석탄재를 일본산에서 국내산으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이 절실히 셈이다.

일본산 석탄재 수입량은 2015년 135만t, 2016년 133만t, 2017년 137만t,

2018년 129만t으로 약 130만t 전후였다.

이에 따라 이참에 일본산을 쓰지 않겠다고 공언한 시멘트업계는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석탄재가 130만t 정도면 충분히 대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문제는 남해나 서해 등에 분산돼 있는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매립하는 것이 이들 시멘트공장이 있는 동해, 삼척, 옥계 등으로 운반하는 것보다 싸다는 것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화력발전소들이 석탄재를 매립하는데 드는 비용은 t당 1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하지만 내륙 시멘트사들이 모여 있는 단양, 영월, 제천이라면 모를까 동해안까지 이들 석탄재를 운반하는데는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는 총 940만t으로 이 가운데 72%인 677만t은 레미콘, 콘크리트 혼합재로 쓰였다. 또 10%인 94만t이 시멘트 원료로 사용됐다. 나머지 17% (160만t)가 성토재로 쓰이거나 매립됐다.

성토재나 매립한 160만t을 융통할 경

우 일본산 석탄재 수입량(약 130만t)을 충분히 대체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석탄재를 배출한 발전사가 산 매립 비용 대신 비싼 운반비를 내고 시멘트 공장으로까지 가져다주느냐, 아니면 그동안 일본에서 보조금까지 받으며 일본산 석탄재를 썼던 시멘트회사들이 별도의 운반비를 부담하면서까지 국산 석탄재를 쓰느냐가 우선 결정돼야 한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일부 시멘트 회사의 경우 점토광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문을 닫아놓은지 오래고, 천연자원인 점토는 유한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당장 급한 회사들의 경우 매립한 국산 석탄재를 폐기 쓰고 있지만 이 역시 염분이 많아 실제 사용하기 까진 시간이 필요하고, 일부는 석회석 광산 부산물로 나오는 점토 등을 통해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방사능 우려로 일본산 석탄재 대신 중국산도 일부에서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지만 자국에서 시멘트 생산에 대부분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매립하는 중국산 역시 운반비 등 경제성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가을맞은 전통시장 매력에 빠져보세요”

중기부-소진공 ‘전통시장 가을축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달 20일부터 내달 10월 20일까지 전통시장과 상점가 370여 곳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가을축제’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시장하시죠? 전통시장으로 떠나는 가을여행’을 주제로 전통시장의 주식 명절 대목 매출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통시장 가을축제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가을여행주간과 오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전국우수시장박람회와도 연계한다.

이번 축제는 시장 상인주도로 특화상품과 주변 관광지 등을 연계한 고객 참여형 축제로 꾸며졌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전통시장 가을축제로 전통시장을 지역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전통시장 가을축제에서는 문화공연·특가판매·체험행사·공동이벤트·팔도장터 관광열차 증편 운행 등 행사가 운영된다.

주경예산 편성으로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일전통시장, 대해종합시장 등 포항지역 시장 15곳도 지진피해로 침체된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이번 축제에 함께 참여한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이제는 유튜브 세상… 콘텐츠 없이 사업성공 힘들다”

이필성 샌드박스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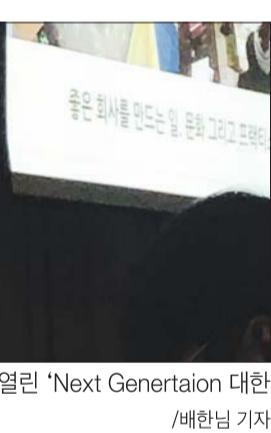
유튜브, 세컨더리 스크린 아닌 TV 넘어선 프라이머리 스크린

“제가 처음 창업한 5년 전과 달리 정말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이 유튜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세컨더리 스크린이 아닌, 곧 TV를 넘어서는 프라이머리 스크린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유명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만 100%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일부 소비하고 나머지는 세부 관심사의 만족을 돋는 DIY, 홈베이킹, 막방 등 본인의 관심사에 맞춘 콘텐츠 소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저희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유병재 씨가 활동하는 것처럼 방송과 디지털이라는 표현이 무너지고 미디어와 콘텐츠 두 가지만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필성 샌드박스 대표는 ‘넥스트 제너레이션(Next Generation) 대한민국 CEO 컨퍼런스 2019’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필성 대표는 자신이 바라본 유튜브 생태계의 미래성을 설명하고 콘텐



이필성 샌드박스 대표가 17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Next Generation 대한민국 CEO 컨퍼런스 2019’에서 강연하고 있다.



츠 없이는 어떤 비즈니스도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밝혔다.

성인실무교육 기업 패스트캠퍼스는 17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Next Generation 대한민국 CEO 컨퍼런스 2019’를 열었다.

이날 첫 세션을 진행한 이필성 샌드박스 대표는 “유튜브는 웹과 닮아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서비스 개념의 플랫폼은 흥망성쇠가 존재하지만 윈도, 안드로이드, 월드와이드웹(WWW) 등 더 윗단의 플랫폼은 망하지 않는다”며 “저는 유튜브가 그 정도 지위에 올라가 있

다고 생각하고, 꽤 오랜 시간 이 지위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필성 대표는 구글에서 일하면서 목격한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가 동영상 콘텐츠에서 현지위를 장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튜브는 파트너십 프로그램, 제작 시스템, 동영상 광고 스kip 기능 등 여러 매크로, 마이크로 장치를 갖고 있다”며 “동영상에 몰입해있는 플랫폼 중에서 글로벌 스케일이고 정말 자본력이 뛰어난 플랫폼은 현재로서는 유튜브 외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올바른 수면자세 지키는 ‘5존 컨투어폼’

웅진코웨이 ‘프라임 라지킹’ 출시

웅진코웨이는 넉넉한 잠자리로 수면의 질을 높인 대형 사이즈 ‘탑퍼교체 매트리스프라임 라지킹(CMLK-S03·사진)’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탑퍼교체 매트리스 프라임 라지킹은 웅진코웨이 매트리스 중 가장 큰 사이즈다. 여유로운 수면 공간을 제공해 아이나 반려동물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가정도 옆 사람의 방해 없이 편안한 취침이 가능하다. 폭이 1800mm로 성인의 기준으로 누울 수 있을 만큼 넓으며, 세로 길이는 킹 사이즈 대비 80mm 늘어난 2080mm로 키가 큰 체형의 사용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신체 곡선에 따라 5개의 밀도로 체중을 분산시키는 ‘5존 컨투어폼’ 탑퍼를 적용해 체형에 딱 맞는 편안함을 제공한다. 신체 부위별로 최적화된 안락함을 형성하고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탑퍼교체 매트리스 프라임 라지킹은 렌탈 구매 시 탑퍼를 3년에 한 번(6년 약정 기준) 새것으로 교체해준다. /김승호 기자

운송 플랫폼 서비스 연동 정보 관리

기업간(B2B) 통합운송관리 서비스 스트리트업 로지스팟은 업계 최초로 기업이 사용하는 내부 시스템에 로지스팟의 운송 관리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로지스팟

오픈 API’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로지스팟 오픈 API는 로지스팟의 서비스와 데이터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개발자용 인터페이스다. 로지스팟 오픈 API로 기업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등의

업무 시스템이나 앱에 로지스팟 운송 플랫폼 서비스를 연동해 쉽게 운송 정보를 확인하거나 관리를 할 수 있다. 간단한 과정만으로도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로지스팟의 운송 플랫폼을 연동할 수 있다. /배한님 기자

‘치사율 100%’ 돼지열병 결국 뚫렸다… 北 유입 가능성

치료제 없어 외국선 100% 살처분
발생 농가 北과 불과 10km 내 지역
역학조사 실시… 감염경로 파악중
태풍에 북한서 바이러스 전파 추정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국내 첫 발생, 유입 경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SF의 발생 원인이 여전 각도에서 의문을 던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 농가의 위치 등을 고려해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백신·치료제 없는 돼지열병

ASF는 폐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는 무서운 돼지 전염병이지만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하지만 돼지는 한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 약도 개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미 ASF가 발생한 중국 등지에서는 불가피하게 대대적인 돼지 살처분이 뒤따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17일 오후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도축장에서 방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도축장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 농가에서 출하된 돼지 136마리가 전날 도축됐다. /연합뉴스

출혈과 고열이 주 증상이다. 고열과 혈액성 설사 등이 동반되는 심금성·급성형은 발생 후 1~9일 중 폐사하며, 폐사율은 최대 100%에 달한다.

급성형보다 증상이 덜한 아급성형은 발생 후 20여일째 폐사하며, 폐사율은 30~70%다. 발육 불량과 폐렴 등 증상이 나타나는 만성형은 폐사율이 20% 미만이다.

이처럼 폐사율이 매우 높아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지만, 아직 사용 가능한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 외국 발생국에서는 100% 살처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ASF 발생 원인 ‘갸우뚱’

경기도 파주에 있는 발생 농장 주변 3km 이내에는 다른 돼지 농장이 없다. 이 농장은 어미돼지(모돈)로부터 어

린 돼지(자동)를 생산하는 농장으로, 어린 돼지가 생후 10주가량이 되면 가족이 운영하는 비육 농장 2곳으로 돼지를 옮겨왔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원인으로는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남은 음식물을 먹이거나 ▲농장 관계자가 발생국을 다녀왔거나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경우 등이 지목돼왔다.

그러나 이번 국내 사례의 경우, 그 어떤 경우도 들어맞지 않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으로서는 눈에 드러난 발생 경로를 우리들이 당장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그래서 오늘(17일) 아침부터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농장은 창문이 없이 완전히 밀폐된 형태의 ‘무창’(無窓) 농장으로, 외부에서 멧돼지의 출입이 차단돼 있다.

농장주가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농장은 업체에서 사료를 공급 받아 돼지에게 먹이고 있어, 남은 음식

물을 급여하지도 않았다. 농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4명 쓰고 있지만, 이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이 아닌 네 팔 출신이다. 이들은 최근 외국을 다녀온 일도 없다고 한다.

◆‘북한서 유입’ 가능성에 무게

파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는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자유로를 따라 5km가량 떨어진 한강, 공릉천 합류지점 인근으로 북한과는 불과 1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오두산통일전망대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으로 임진강을 건너면 바로 북한 지역이다.

북한은 올해 5월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했다.

특히 최근 태풍이 북한 황해도 지역에 상륙하는 등 접경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야생멧돼지가 떠내려와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전파된 이 질병은 지난해 8월 이후 중국과 베트남으로 급속히 퍼진 뒤 올해 북한에 발생한 데 이어 국내에서까지 발생하게 됐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추석 떡값’ 400만원 받고 민생 외면한 여야

직장인보다 6배 많게 받아
‘네탓 공방’ 국회에 여론 쌓늘

20대 국회 임기 중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인 올해 정기국회가 ‘조국 정국’으로 첫 일정부터 불발하면서 여당은 ‘리더십 부재’, 야당에는 ‘민생 외면’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추석 상여금을 의원마다 400만원 넘게 받았지만, ‘네탓’ 공방을 이어가는 국회 모습에 여론은 더욱 들끓는 모양새다.

1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을 향해 “모든 사안을 조국 장관 임명 철회로 연결하는 것은 억지”라며 “국회는 민생을 챙기고 장관은 장관 할 일을 하며 ‘제발 일 좀 하라’는 국민 명령을 받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기회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는 조 장관의 연설회장 출석을 두고 설전을 벌였고, 의사일정 합의는 끝내 이루어 못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간이 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2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당시 사개특위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나면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으리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전날 같은 당 황교안 대표의 삽발에 대해 “제1야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저항의 뜻으로 삽발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일”이라고 닫혔다.

여야는 앞서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18조 3’에 따라 지난 9일 추석 상여금으로 405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연속파행으로 ‘역대 최악’이란 오명을 쓰고 있지만, 올 추석 직장인 상여금 평균 64만

원보다 6배 넘는 보수금을 받아 간 것. 여야가 올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연 것은 네 번에 불과하다. 지난 4월 ‘페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이후에는 본회의를 단 한 차례밖에 열지 않았다.

9월 국회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다. 하지만 의원 대부분이 총선 대비를 위해 의정 활동보다 지역구 활동에 열을 올리면서 20대 국회는 사실상 ‘해산’ 상태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석대성 기자

민주당, ‘돼지열병대책특위’ 가동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예방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ASF 대응책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6월 북한 자강도에서 ASF가 발생하자 국내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대책 논의를 위한 특위를 설치했다.

ASF는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돼지 전염병이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약도 없는 실정이라 확산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내 ASF 예방대책특위를 개최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ASF는 현재까지 치료약이 없는 치명적 질병이라 초기 단계에서 강력한 방역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일시적 이동중지 명령 발동하는 등 당국에 총력 대응을 요청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조 의장은 또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도 긴급히 추진하겠다”며 “총력 대응이 필요한 비상한 상황”이라며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석대성 기자

과기부 R&D 예산 횡령 5년간 100억 대

윤상직 의원 “강력 제재로 사전 차단”

최근 5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비 횡령액이 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올해 7월까지 R&D 사업비 횡령은 총 139건이 적발됐다. 피해액은 102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환수한 금액은 67억4000만원으로, 3분의 1인 35억원을 더 회수해야 한다.

윤 의원은 “국민 헐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범죄임에도 일부 연구자가 ‘내 돈’으로 인식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과기부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업비 유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연구자 윤리의식 향상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대성 기자

전동 킥보드·휠 사고 1년새 2배 ‘껑충’

송석준 의원 “교통체계 수립해야”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 수단(페스널 모빌리티)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최근 1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사망 4명·부상 124명)에서 지난해 225건(사망 4명·부상 238명)으로 1년 사이 사고와 부상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같은 기간 차와 사람 간 교통사고가 33건(부상 38명)에서

61건(부상 64명)으로 증가했다. 차와 차의 교통사고는 58건(부상 63명)에서 141건(153명)으로 늘었다.

송 의원은 “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2017년 7만~8만대에서 2022년 20만~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시장규모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통체계 방안을 하루빨리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

내신성적 중위권도 수도권대학 갈수있다

12개대학 적성검사 4790명 선발
학생부 60% 대학마다 차이 있어

2020학년도 대입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학교 내신성적 위주로 치러지는 수시모집 중 내신 중위권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도전할 수 있는 적성고사 전형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대입에서 적성고사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서울 소재 삼육대·서경대·한성대와 경기도 소재 가천대·성결대·수원대·평택대·한신대, 대전·충청권 소재 고려대·세종·을지대·한국산업기술대·홍익대·세종 등 총 12개 대학이다.

적성고사 전형 선발인원은 지난해 보다 151명 증가한 4790명으로 이 중 서경대(+86명), 한신대(+42명), 평택대(+41명), 성결대(+34명)는 인원이 늘었고, 고려대 세종(-40명), 수원대(-10명), 한성대(-2명)는 작년보다 모집인원이 감소했다.

전형 방식은 학생부 60%에 적성고사 40%로 동일하지만, 학생부 반영 방법과 적성고사 유형 등 평가 방법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대학별 전형을 파악해 자신에게 유리한 곳을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적성고사 전형은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인 내신 영향력은 크지 않다. 아울러 적성고사 형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유사하지만 나이도는 수능보다 쉽게 출제돼 수능 시험과 함께 대비할 수도 있다. 내신의 경우 대체로 3등급~5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실질 반영 비율이 낮다. 이에 따라 낮은 내신성적은 적성고사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게 입시



지난 4일 서울 상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의 견해다.

가천대와 수원대의 경우 3등급과 5등급의 점수 차이는 불과 6점이고, 평택대와 성결대와 함께 적성고사 두 문제로 만회가 가능한 수준이다. 서경대, 한국산업기술대는 적성고사 3 문제 정도로 내신의 점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적성고사 부담이 큰 대학도 있다. 내신 점수가 낮은 학생일 수록 학생부 실질 영향력을 감안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대학마다 내신 반영 교과의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많아 내신 등급이 각 학교마다 다르게 산출될 수 있으므로, 대학별 내신 계산 방법에 따라 자신의 내신 점수를 확인하는게 좋다.

적성고사 유형도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출제 과목의 경우, 삼육대, 성결대, 수원대 등은 국어와 수학을 반영하고, 가천대와 을지대는 국어, 수학과 함께 영어도 반영한다. 홍익대 세종은 영어와 수학을 반영한다. 고려대 세종 인문계를 제외하면 모든 대학에서 수학을 반영하고 실제 평가에서도 수학 과목에서 변별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목함지뢰에 다리 잊었는데 전상 아닌 공상

형평성 잃은 보훈심사 개선 목소리

보훈처, 비난 거세지자 재심의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가 북한군의 목함지뢰로 다리를 잊은 하재현 예비역 종사에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군안팎에서는 '보훈처 소속의 보훈심사위원회의 판정 기준이 둘지 않다'는 거센 비난이 나온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보훈처는 17일 뒤늦게 해명자료를 통해 국가유공자 심의를 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종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 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해 두 다리를 잊었다.

비무장지대 일대는 행동규칙이 전시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육군은 하종사가 전역할 당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상(戰傷)' 판정을 내렸고 같은 달 23일 판정 결과를 하종사에게 통보했다. 판정 결과를 접한 하종

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처우에 있어 공상과 전상은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

다만, 군인들은 전상을 더 명예롭게 생각한다.

전상이 적과의 교전이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상은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부상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 달 7일 하종사의 부상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경계·수색·매복·정찰 활동·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 규정을 적용해, 공상 판정을 내렸고 같은 달 23일 판정 결과를 하종사에게 통보했다. 판정 결과를 접한 하종



하재현 종사가 지난해 8월 경기도 파주시 육군 1사단 수색대 이종명관에서 열린 목함지뢰 도발 사건 3주년 기념행사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는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접수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판정 재심의 요청을 올렸다.

보훈심사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형평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형철 기자 captin@

블라인드 채용 한다지만… 절반이 학벌 본다

사람인, 기업 337개사 설문
선호대학은 서울소재 4년제

지원자의 출신 학교를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기업 2곳 중 1곳의 채용 평가에서 학벌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사람인이 기업 337개사를 대상으로 '좋은 학벌이 채용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8.1%는 '좋은 학벌이 채용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학벌이 채용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지원자가 노력한 성과여서'(51.9%)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학벌에 따른 역량 차이가 있어서'(43.2%), '객관성이 있는 조건이어서'(37.7%), '기준에 채용 시 만족도가 높아서'(11.7%), '활용 가능한 인맥이 많아서'(9.3%) 등을 들었다.

가장 선호하는 지원자의 출신 학교로는 '서울소재 4년제 대학'(45.7%)을 꼽았다. 이어 '지방 거점 국립대학'(24.1%), '상위 10위권내 명문대학'(19.1%), '일명 스카이 대학(서울/연세/고려대)(3.1%)' 등의 순이었다.

선호하는 학교 출신 지원자에 대해서는 채용 과정 중 '지원자를 더 꼼꼼히 평가한다'는 응답이 66.7%(복수응답)였고, '전형 진행 시 우선순위로 선정'

(20.4%), '가산점 부여'(18.5%) 등의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채용 평가 비중에서는 평균 약 32%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 10곳 중 2곳(21%)은 다른 자격조건이 모자라도 학벌이 우수해 채용한 직원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학벌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복수응답)로 90.9%가 '업무 능력과 크게 연관이 없어서'를 들었다. 이밖에 '기준 채용 시 만족도가 낮아서'(10.9%), '경영진의 방침이어서'(5.1%), '기존 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어서'(4.6%) 등의 답변이 있었다.

/한용수 기자

구직자 30% “면접서 결혼여부 질문 받아”

개인정보 물으면 최대 500만원
입사지원서 정비한 기업은 49.8%

대기업 공채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에 따라 기존 입사지원서를 정비한 기업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크루트가 상장 기업 699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귀사는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라 입사지원서 등을 정비하셨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정비를 마쳤다'는 기업은 49.8%에 그쳤다.

나머지 기업들은 '정비 중'(29.4%)이나 '정비 예정'(19.4%)이라고 했다.

채용절차법에 따른 정비를 마쳤다는 기업은 규모별로 대기업(종업원 1000명 이상, 66.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중견기업(종업원 300명~999명, 58.2%), 중소기업(종업원 299명 이하, 39.5%) 순이었다.

지난 7월 17일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을 위반해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를 수집 및 요구하는 것이 금지됐다.

결혼여부나 부모님 직업 등 개인정보를 물으면 최대 500만원의 부정 채용 청탁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수집이나 요구가 불가한 개인정보는 구직자 본인의 용도,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정보,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구직자 41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구직자 대다수(87%)는 면접에서 개인정보 관련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받은 개인정보 질문은 ▲ 결혼여부(30%)였고, 특히 성별 교차 분석 결과, 여성 구직자의 61%가 결혼여부 질문을 받은 반면, 남성 구직자는 39%에 그쳐 차이를 보였다.

혼인여부에 이어 많았던 개인정보 질문은 ▲ 출신지(23%) ▲ 부모직업(20%) ▲ 용모(15%) 순으로 집계됐다. /한용수 기자

삼육대 학술정보원

RISS API보급기관 선정

삼육대 학술정보원은 국내 최대 학술 연구정보시스템 RISS의 상호대차 및 소장정보 API 보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하는 사업은 대학도서관 업무관리 시스템(LAS)에 RISS API를 연계·보급하는 사업이다. RISS의 개방 및 확대를 통해 학술정보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고, 대학도서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

삼육대 학술정보원이 이번 사업으로 보급 받는 API는 해외논문구매대행(EDD S)과 상호대차(WILL) 등 2종이다. 3천여 만원의 설치 및 보급 비용 일체는 KERI S가 부담한다.

이로써 이용자들은 RISS 사이트에 방문해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삼육대 학술정보원 홈페이지에서 RISS 학술정보 검색, 문헌복사, 해외논문구매대행, 상호대차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신청 건에 대한 처리상태, 제공 가능한 소장처는 학술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손현경 기자 son89@



한국외대 재학생, 'FTA 활용대회' 우수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금융학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IFTA팀(장민서, 박주성, 곽해리, 김소형, 한혜정)이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19 대학생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한국무역협회장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FTA를 활용한 기업의 가상 성공사례 또는 기업이 활용 가능한 FTA 활용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해 서류 심사 후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에 대한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시상 팀이 결정됐다.

한국외대 장민서 학생은 "높은 수준의 인적, 기술적 자본을 가진 중소기업 이더라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한계를 맞닥뜨릴 수 있고,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학과 교수님들과 해외 영업 및 물류 현직자, 전년도 수상자로부터 조언을 받아 완성도 높은 가상 성공사례를 제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NEW
KFC

더 크고 매운맛
한국식 퍼이팅 치킨드레스
4,300
4,300
고소한맛(S)

*87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일부 판매 제외



(오마인 / 치즈 / 츄리)
시즌과 함께 하면
더욱 맛있습니다.
+ 200원



신한은행, 청업법인 길라잡이 핸드북 발간
신한은행은 신규법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한 '청업법인을 위한 혁신성장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핸드북은 오는 18일부터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향후 출시예정인 '신한금융 혁신성장플랫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롯데하이마트, 공군본부에 3천만원 상당 가전제품 기증
롯데하이마트는 17일 충남 계룡시 공군본부에서 공군 장병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가전제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롯데하이마트는 공군에 청소기 140여대와 전자레인지 90여대로 구성된 30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기증했다. 전달된 가전제품은 공군 장병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왼쪽)와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광동제약, 임직원 대상 '광동인의 소확행' 사진전
광동제약은 서울 서초동 본사 가산 천년정원에서 임직원 대상 사진공모전인 '제5회 가산사진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광동인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총 223점의 작품이 접수돼 구성원의 큰 관심을 모았다. 회사는 이 중 40여점의 수상작을 선정해 내달까지 전시한다.

/광동제약



동아쏘시오홀딩스, 정보보호경영 선포식 개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17일 오전 서울 용두동 동아쏘시오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정보보호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경영 선포식은 기업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인 정보를 각종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정보보호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동아쏘시오홀딩스

'오픈 이노베이션' 참여 스타트업 모집

동원그룹-무역협회 공동 주최

동원그룹이 '동원그룹 x KITA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가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원그룹과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모집 대상은 해양수산, 식품, 패키징, 물류, 건설 등 동원그룹의 주요 사업과 관련한 비즈

니스 모델, 기술 역량 등을 갖춘 스타트업이다.

동원그룹은 지원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등을 거쳐 최종 행사 참가 기업을 선정하고 오는 10월 25일 서울 코엑스 2층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스타트업 IR 피칭' 및 '비즈니스 네트워킹 미팅'을 겸한 '오픈 이노베이션' 본 행사를 진행한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적당히 볼륨감 있는 가슴은 여성의 성적 매력을 부각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허리 라인을 잘록해 보이게 만들어 옷 맵시를 살려주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가슴이 커보이는 보정속옷이나 에스트로겐이나 다양한 함유된 기능성식품, 바르기만 해도 가슴이 커진다는 정체불명의 화장품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들 제품은 가슴 사이즈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혈액 순환 장애나 호르몬장애, 소화불량 등과 같은 부작용만 남길 뿐이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빈약한 가슴 때문에 콤플렉스를 겪고 있거나 모유수유 후 처진 가슴 때문에 고민이라면 처음부터 '가슴확대술'을 시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가슴확대술(유방확대술·augmentation mammoplasty)'은 작은 가슴을 인공 보형물을 통해 크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미용성형술이다. 대부분 '가슴확대술'하면 식염수 백이나 실리콘 백을 떠올리는

데, 이들 제품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나 촉감 등의 문제로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또 모양이나 촉감이 부자연스러운 단점이 있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코헤시브젤(코젤) 백을 더욱 선호하는 편이다. 코헤시브젤은 실리콘 백에 비해 감촉이 부드럽고 이질감이 적은데다 외부의 강한 압력에도 터질 위험이 적어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간혹 미혼여성들이 모두 수유에 대한 고민 때문에 가슴확대술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지만 의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코헤시브젤은 모두 수유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유방암 발생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수술방법은 유방아래나 겨드랑이를 절개한 후 원하는 크기의 보형물을 삽입해주면 된다. 단, 가슴성형은 수술부위가 넓은 만큼 전신마취를 시행해야 하며, 반드시 성형전문의와 마취전문의가 동시에 입회하여 수술이 진행되어야 한다.

의사의 숙련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보형물이 구겨져 모양이 찌그러질 수 있고 구형구축이 발생할 확

률이 높기 때문이다. '구형구축'은 삽입된 보형물 주위에 두꺼운 피막이 형성돼 점차 따딱해지는 증상으로 가슴성형 부작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보형물 제거 원인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부작용의 발생 빈도가 높은데, 구형구축의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학계에서는 이를 반응, 불순물 실리콘의 미세누출, 혈종, 감염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만일 가슴확대술을 시행한 후 염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바로 해당 병원을 찾아 보형물 제거술을 시행해야 하며, 최소 2~3개월 정도 회복기간을 거쳐 재시술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 가슴확대술을 받았다면 2년마다 정기적으로 MRI촬영을 시행하여 보형물에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보고, X-레이 6개월에 한 번씩 촬영해 보형물로 인해 주변조직에 이상이 생겼는지 관찰해야 한다.

이밖에도 수술결과는 의사의 실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수술 전 반드시 집도의가 성형전문의인지, 해당 시술에 대한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인지 꼼꼼하게 따져본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세민성형외과 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가슴 확대술의 오해와 진실

현대백화점그룹, 순직 소방관 유가족에 2.5억 전달

자녀 학비, 가족 심리치료 등 지원

'제복 공무원'의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한 현대백화점그룹 사회복지재단의 진정성 있는 지원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사회복지재단은 17일 순직 소방관 유가족에게 지원금 2억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소방청에서 진행된 '순직 소방관 가족 지원금 전달식'에는 박동운 현대백화점그룹 사장과 정문호 소방청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지원금은 소방청에서 추천한 순직 소방관 자녀(초등학생 및 중·고등 학생) 45명을 대상으로 한 '파랑새 장학금(학비 200만~300만원 지원)'과 유가족들의 생활 환경 개선 및 심리치료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그룹 사회복지재단은 순직 소방관 유가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11년째 장학금·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유가족 총 497명에게 15억원을 전달했다.



17일 오전, 박동운 현대백화점 사장(사진 왼쪽 세번째)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소방청에서 정문호 소방청장(사진 왼쪽 네번째)에게 순직 소방관 자녀 지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또한, 현대백화점그룹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순직 경찰관과 공무 중 다친 공상 경찰관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해까지 790명에게 16억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박동운 현대백화점 사장은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소방 공무원의 희생·봉사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유자녀들이 우리나라의 핵심 인

재로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백화점그룹 사회복지재단은 소외계층 아동들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는 '파랑새 지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한 성장, 재능 육성, 의료 및 재활 분야 등 3대 핵심 분야로 선정해, 난치병 환아 지원·저소득층 육상 유망주 지원 등 총 20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인사

- ◆ NICE엘엠에스 ◇ 신규선임 △ 대표이사 박용찬
- ◆ 현대경제신문 △ 이사(광고국) 조민영
- ◆ 청년일보 △ 산업·금융 총괄 부국장 정준범
- ◆ 온라인뉴스팀장 김두환
- ◆ 한국면세뉴스 △ 사장 겸 편집국장 박홍규

부음

- ▲ 서영섭(전 한국은행 마산지점장·전 경남은행 상무)씨 별세, 서정순·정숙·혜숙·동수(세원지앤씨 상무)·현주씨 부친상 = 17일 오전 4시 24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19일 오전 5시 30분. (02-3410-6919)
- ▲ 최용갑씨 별세, 최일(동신대학교 총장)·건(미국실리콘밸리수석연구원)·희씨 부친상, 최영주·김지정씨 시부상, 최용훈(광주케이블 TV 대표이사)씨 장인상 = 16일 저녁, 광주 서구 매

월동 VIP장례타운 201호, 발인 19일 오전 8시 20분. (062-521-4444)

▲ 이영숙씨 별세, 김진수(한겨레신문사 출판 사진부 기자)·지희(파주 한빛초등학교 교육행정실장)·선희·미희씨 모친상, 황윤경씨 시모상, 전명열(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변전건설부 차장)·라승재(씨텍 운영팀 근무)씨 장모상 = 17일 오전 4시 5분. 국민건강보험 일산 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19일 오전 11시 30분. (031-900-0444)

신세계百 분더샵, 英 왕실백화점에 ‘K-패션’ 깃발

韓 패션 첫 ‘헤롯’ 정식 입점
글로벌 진출 3년 만에 성과
내달 뉴욕서도 입점 러브콜
구찌 등 명품과 어깨 나란히

신세계백화점의 프리미엄 브랜드 ‘분더샵 컬렉션(BOONTHESHOP Collection)’이 글로벌 진출 3년만에 74% 신장하며 해외 사업이 순항중이다.

◆연간 1500만명 방문하는 영국 왕실 백화점 입점

신세계백화점은 분더샵이 K패션 브랜드 최초로 영국 왕실 전용 백화점 헤롯(Harrods)에 정식 입점한다고 17일 밝혔다. 1849년 설립돼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백화점인 헤롯은 세계 5대 럭셔리 백화점 안에 손꼽히며 하루 평균 10만명, 연간 1500만명의 전 세계 고객들이 찾는 최고급 백화점이다.

신세계백화점의 분더샵은 단기 팝업 스토어가 아닌 총 300여개의 정식 입점 브랜드 중 하나로 헤롯에 입점, 유럽 내 상류층 고객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만 구성된 2



분더샵 헤롯 매장

/신세계백화점

층에서 보테가 베네티, 로에베, 가브리엘라 히스트 등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분더샵은 양면 착용이 가능한 양털·울 코트 외에 종이와 같이 얇게 가공한 가죽 스커트, 파리에서 ‘품질이 애르메스 급’이라는 호평을 받은 ‘봉제선 없는’ 최고급 캐시미어 니트 등 100여종의 독창적인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전체 방문객의 30% 이상이 이용하는 주출입구 쪽 화면에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분더샵 컬렉션 소개도 진행한다.

상품의 가격은 양털 코트 4400유로, 캐시미어 니트 1000유로, 가죽 치마 1500유로 등이다. 이는 현지 프리미엄 상품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이번 분더샵 컬렉션 상품은 이

달 말 분더샵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를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대구점 단독매장 그리고 분더샵 매장 등을 통해 함께 판매된다.

◆뉴욕·파리 등 세계적인 패션 도시 접수

국내 최초 편집숍이자 20여년간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을 선도해온 분더샵은 2017년 9월 세계 최대 패션 시장인 뉴욕에 입성하며 글로벌 무대에 첫 선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 백화점인 봉마르세(파리)에 입점해 첫 해 만에 목표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하며 패션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올해 3월, 뉴욕의 대표적인 럭셔리 백화점으로 꼽히는 버그도프 굿맨

(뉴욕) 입점을 계기로 캐시미어와 모피 위주의 상품 구성에서 벗어나 사계절 토템 패션 브랜드로 거듭났다.

세계 최대 패션 시장에서 첫 선을 보인 봄·여름 상품은 80%에 육박하는 판매율을 기록, 버그도프 굿맨 내 신진 브랜드 평균 판매율(60%)을 월씬 웃도는 좋은 실적을 보이며 ‘패션 한류’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를 굳혔다.

뉴욕과 파리 등 세계적인 패션 도시에서 성과를 내며 분더샵 컬렉션의 위상도 달라지고 있다. 해외 사업 초기 뉴욕과 파리 현지 쇼룸으로 바이어를 초청해 입점을 제안했던 분더샵이 해외 유명 백화점에서 먼저 찾는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 발돋움 한 것.

분더샵 컬렉션은 10월 노드스트롬이 뉴욕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여성 패션 전문관 ‘Nordstrom NYC Flagship’에 입점 제의를 받았다. 노드스트롬 118년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이자 미 동부 지역의 첫 매장에 구찌, 발렌시아가 등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와 함께 하자는 제의를 받으며 최근 ‘뉴욕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임을 입증한 것.

신세계백화점 분더샵 담당 김덕주 상무는 “3년 전 처음으로 세계 무대에 도전했던 분더샵 컬렉션이 K패션 브랜드 최초로 헤롯 백화점에 정식 입점하는 등 세계 시장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며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고객을 사로잡으며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로 발돋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새콤달콤맛 ‘순하리 요구르트’ 미국 진출

롯데주류

딸기맛 이어 시리즈 다섯번째 수출길

롯데주류가 ‘순하리 요구르트’(사진)를 미국에 수출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출 전용 제품 ‘순하리 요구르트’는 요구르트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을 살린 제품으로 미국에서는 순하리 유자, 복숭아, 사과, 딸기에 이어 5번째로 선보이는 순하리 시리즈다.

제품명 ‘순하리’를 한글로 표기한 다른 나라 수출 제품과는 달리, 미국 수출



수출품 역시 현지 실정을 고려해 디자인한 맞춤 제품”이라며 “미국에서 ‘순하리’가 한국 소주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하리’는 지난 2015년 첫 수출 이후 매년 두 자리 수 성장률을 보이며 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 세계 30여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작년 기준 전년비 4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인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박인웅 기자



‘배처럼 아삭한 태추 단감 맛보세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이 ‘태추 단감’을 홍보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배처럼 아삭하면서 과즙도 풍부한 경남 창원의 태추 단감을 1팩(4입) 9천9백 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이마트

‘햇사과 무한담기’ 이벤트

이마트가 추석 직후 사과 비수기에 농가를 돋기 위해 ‘햇사과 무한담기’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는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산지에서 총 350톤, 10억 물량의 햇사과(홍로)를 공수해 1봉을 1만원에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무한담기 전용 봉투에 사과를 가득 담으면 평균 14개(3.5~3.7kg)의 사과가 들어가 1개당 710원 선이다.

이는 기존 판매하던 봉지 사과(1.8kg/1봉, 8980원)보다 100g 당 가격이 45% 가량 낮은 반값 수준이다.

이마트가 이번 행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른 추석의 영향으로 추석 직전부터 사과 가격이 대폭 하락한 것에 더해 수요마저 줄어들자 사과 소비를 촉진해 국내 농가를 돋기 위해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추석을 6일 앞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사과 평균 도매 가격은 1만6985원으로 전주도 매가격보다 30% 하락했다. /신원선 기자

“가상으로 상품기능 체험해보세요”

롯데홈쇼핑 ‘무빙 AR’ 서비스 도입

롯데홈쇼핑은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해 가전·가구 상품을 가상으로 배치하고, 기능 체험까지 더한 ‘무빙 AR’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해 쇼핑편의성을 높였다.

‘무빙 AR’은 ‘Moving’의 사전적 의미인 ‘감동시키는’, ‘움직이는’ 두 가지 뜻을 담아 ‘고객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움직이는 AR’이라는 뜻이다. 현재 운영 중인 가전·가구 가상 배치 서비스인 ‘AR View’보다 진화한 서비스로, 상품 내부, 기능 등 상세 확인이 가능하다. 냉장고의 내부를 열어보고, 소파 등반 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TV의 경우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기능까지 반영됐다.

롯데홈쇼핑 모바일 앱 검색창에 ‘무빙 AR(무빙ar, AR, ARview)’을 입력하면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가상으로 배치하고 ‘플레

이’ 버튼을 누르면 상품의 작동을 체험할 수 있다.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통해 여러 제품의 복수 배치도 가능하다.

롯데홈쇼핑은 온라인 쇼핑에서 오프라인 매장처럼 상품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고객 니즈를 반영해 ‘무빙 AR’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현재 적용 상품은 냉장고, 소파, 거실장 등 총 18개 상품이며, 흰 인테리어 상품을 중심으로 추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9월 업계 최초로 론칭한 ‘AR View’ 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입 이후 누적 조회수만 60만 건 이상을 기록했다. 가전·가구 상품의 교환 및 반품율도 도입 이전과 비교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30대에서 40대 초반 이용률이 25%로 가장 높아, 주요 고객이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20%)인 인터넷 쇼핑몰 ‘롯데아이몰’과 비교해 젊은 고객층의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선 기자

유통 단신

동서식품

보리차·옥수수차 리뉴얼

동서식품은 곡물 식수음료 ‘동서 보리차’, ‘동서 옥수수차’ 등 2종(사진)을 리뉴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음료 제품은 ‘동서 보리차’와 ‘동서 옥수수차’ 2종이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500ml 페트 형태로 기존 차음료 브랜드인 ‘동서 맑은티 앤’ 5종 중 소비자들

이식수용으로 가장 선호하는 보리차와 옥수수차를 리뉴얼해 선보였다. /박인웅 기자

롯데제과

스낵+소스 ‘딥소스팩’ 3종



‘딥소스팩’은 총 3종으로 꼬깔콘 고소한맛과 허갈릭마요 소스를 넣은 ‘꼬깔콘 딥소스팩’, 도리토스 나쵸치즈와 허갈릭마요 소스 또는 살사 클래식 소스를 동봉한 ‘도리토스 딥소스팩’ 2종으로 구성돼 있다. 제품은 도시락 타입의 아웃도어 팩으로, 야외에서의 휴대와 편의성을 살리기 위해 작은 종이 상자로 포장했다. /박인웅 기자

美 FDA, 인보사 임상3상 재개 이달 말께 결정

코오롱티슈진 상폐심사 연기說… 극전반전 ‘실낱희망’

한국거래소, 심의위 연기 검토중
환자 3000명 인보사 부작용 없어
상장폐지 결정에 부담 작용할 듯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최종 결정을 하루 앞두고 심사 연기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코오롱티슈진 ‘인보사케이주’ 임상 3상 재개 여부에 대한 대한 미국식품의약국(FDA)의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상장폐지에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FDA의 결정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FDA 잣대가 다르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18일 열릴 것으로 예정된 코스닥심의위원회 연기를 검토 중이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회사측에서 연장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코

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좀 더 검토해야 할 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내일 위원회가 열릴지 여부 자체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8월2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내 첫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기를 받은 의약품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이 뒤늦게 밝혀져 품목허가가 취소된데 따른 후폭풍이다.

원칙대로라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1심 결정 이후 15영업일 안에 다시 회의를 열고,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15영업 일이 끝나는 18일, 2차 회의가 열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규정상 코스닥심의위원회는 15일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미국 FDA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FDA는 노바티스 자회사인 아베시스가 개발 중인 척추선 근위축증 유전자 치료제 ‘졸렌스마’의 전임상 데이터가 조작됐음에도 약물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베시스는 FDA가 졸렌스마의 품목허가를 내기 몇 달 전 이미 동물실험 데이터가 조작됐음을 알았지만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졸렌스마는 지난 5월 시판 승인이 된 이후 지속 쳐방되고 있는 의약품으로 1회 투약 가격은 25억원에 달한다.

FDA는 졸렌스마의 동물실험 데이터 조작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도 의약품의 시판은 지속하고 있다. 동물실험에선 문제가 있었지만, 환자 투여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 더 큰 비중을

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FDA는 데이터 조작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형사 처벌을 고민할 순 있지만 품목 허가 취소는 별개의 문제로 본다”며 “윤리 문제보다 의약품이 환자에 미치는 실질적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판단에 우선 순위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장폐지 변수 될까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가 인보사의 임상 3상 재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3000명이 넘는 환자에 투여됐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결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닥심의위원회가 연기된다면 이달 말 이후로 예상되는 FDA의 결정을 기

다리고 있을 공산이 크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달 26일 FDA에 글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미국 임상3상 재개를 위한 응답자료를 제출했다. FDA의 서류 검토기간이 통상 약 30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졸렌스마 사태를 비추어 볼 때 업계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인보사의 임상 3상도 가능할 수 있다는 청신호가 켜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소액주주를 고려할 때 거래소 입장에서도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결정이 부담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5만9445명으로 전체 36.66%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액은 약 1800억원에 달한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JW그룹, 업계 첫 ‘장애인 표준사업장’

JW그룹이 제약업계 최초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하며 장애인 고용·복지에 앞장선다. JW중외제약과 JW생명과학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2008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 시행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뤄지는 가운데, 제약사가 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은 JW그룹이 처음이다. JW그룹 양사는 2020년 1월까지 공동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장애인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JW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사회공헌 커미티(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중외학술복지재단 중심으로 진행되던 공헌활동을



JW그룹은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1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JW그룹은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1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JW중외제약 신영섭 대표(오른쪽), JW생명과학 차성남 대표(왼쪽)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가운데)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룹 차원의 활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세경 기자

“홈쇼핑서 ‘안다르 레깅스’ 만나요”

CJ ENM 오쇼핑 히터스타일서
22일 ‘에어코튼 레깅스’ 론칭

애슬레저 시장에서 가장 주목 받는 브랜드 ‘안다르(andar)’가 홈쇼핑에 상륙한다.

CJ ENM 오쇼핑부문은 오는 22일 새벽 0시 30분 패션 프로그램 ‘힛 더스타일(Hit the Style)’에서 안다르의 ‘에어코튼 레깅스’를 론칭한다고 17일 밝혔다.

안다르는 현재 회사를 맡고 있는 신애련 대표가 요가

강사 시절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직접 만들면서 시작된 프리미엄 애슬레저 브랜드다. 2015년 9억원의 매출에서 출발한 안다르는 올해 800억 원을 바라볼 만큼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몰에서 오프라인으로 판매채널을 접두화하면서 백화점, 복합몰 등에 총 26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안다르의 에어코튼 레깅스는 F/W 시즌 신상품으로 CJ오쇼핑에서 처음 공개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안다르에어코튼 레깅스 /CJ ENM 오쇼핑부문

한미약품, 면역항암 글로벌신약 개발 박차

美 바이오기업과 항체도입 계약 독자개발 ‘펜탐바디’ 적용 가속

한미약품이 외부의 유망 기술을 도입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이중·다중항체 기반 면역항암 분야의 글로벌신약 개발을 본격화 한다.

한미약품은 미국 유망 바이오기업 페인스 테라퓨틱스가 개발한 새로운 항체를 도입하는 계약을 17일 체결하고, 북경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플랫폼 기술인 펜탐바디(Pentambody™)가 적용된 신약개발 프로그램을 확장해 나간다고 밝혔다. 펜탐바디는 하나의 항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타깃에 동시에 결합하는 차세대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로, 2017년 중국을 대표하는 바이오기업인 이노벤트 바이오로직스와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한 바 있다.



한미약품 본사

이번 계약에 따라 한미약품은 펜탐바디에 페인스의 항체 서열을 적용한 새로운 면역항암 이중항체 및 다중항체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페인스의 항체를 활용한 새로운 이중·다중항체의 연구 및 개발, 생산, 상업화를 담당하며, 모든 암 관련 적응증에서 글로벌 독점권을 갖는다. 양사는 향후 상업화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데, 상세 계약 조건은 양사 합의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페인스는 2016년 설립된 면역항암제 개발 전문 바이오 기업으로, 차별화된 프로파일을 갖는 항체 개발을 목표로 항암 및 안과치료 영역에서 다수의 단일클론항체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페인스의 밍 왕 최고경영자(CEO)는 “페인스는 면역항암치료제 분야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기대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성을 입증하고 있다”며 “한미와의 이번 공동개발 파트너십을 통해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 제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권세창 사장은 “면역항암치료제 분야 유망 기업인 페인스와의 협력을 통해 펜탐바디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혁신적인 면역항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이대목동병원 건강진단 활성화 ‘출장검진’ 시행

이대목동병원이 근로자 건강진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동검진 버스를 도입하고 출장검진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지난 16일 출장검진 시작을 앞두고 이동검진 버스 앞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왼쪽 일곱 번째),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여덟 번째),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등을 비롯한 경영진이 17일 출장검진 출정식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학과장 등을 비롯한 경영진과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대목동병원은 2014년부터 서울시 서남권 유일의 대학병원급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시작한 출장검진으로 연구활동 종사자, 경찰 및 소방공무원, 병원 종사자, 건설 노동자 등 유해 작업 종사자들이 일하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NS홈쇼핑

중소 육성기금 6억 출연

NS홈쇼핑이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에 나선다. NS홈쇼핑은 연말까지 ‘민관공동기술개발투자협약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국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이란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으로 NS홈쇼핑은 지난 8월에 중기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기금을 출연했다.

이번에 조성된 ‘투자협약기금’은 총 6억 원 규모로, 중기부와 NS홈쇼핑이 1대 1의 비율로 3년간 각각 중기부 3억 원, NS홈쇼핑 3억 원을 출연하게 된다.

NS홈쇼핑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NS홈쇼핑 기업 홈페이지에서 지원 서류를 다운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함께 멀리’… 한화, 올해도 우수협력사 격려

독일 바스프사 연수 프로그램 제공

한화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소공로 더플라자에서 우수협력회사 대표들과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우수협력회사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한화는 협력회사 대표들에게 우수협력회사 인증패와 트로피를 전달하며 상생협력의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화는 회사와 함께 노력해온 협력회사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2009년부터 품질, 납기 등이 우수한 협력업체를 선정해 매년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한화는 우수협력회사로 선정된 협력회사에 기술력 향상 및 생산혁신 아이디어 고취를 위한 해외 선진기업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중국 심천을



지난 16일 한화 ‘2019 우수협력회사 시상식’ 행사 후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한화

방문해 중국 강소기업의 노하우를 체험할 수 있는 연수를 진행한다. 이어 올해는 독일 바스프사 등을 방문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협력회사 임직원들에게는 ‘함께 멀리’라는 한화의 동반성장 철학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화이글스의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LGU+ “야구 레전드 선수에게 레슨 받자”

LG유플러스는 내달 7일까지 야구 미디어 플랫폼인 ‘U+프로야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상훈·양준혁 등 프로야구 선수 출신 코치가 진행하는 ‘U+프로야구 레전드 끝장레슨’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레슨은 10월 19일 09시부터 18시까지 목동 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진행된다.

‘U+프로야구 레전드 끝장레슨’은 프로 야구 선수 출신 야구 전문가들이 LG유플러

스 고객 320명을 대상으로 직접 레슨을 제공하는 고객 참여형 프로모션이다. 코치진은 1994년 LG트윈스 우승의 주역이며 KB O1호 국내 좌완 20승 투수인 ‘야생마’ 이상훈, KBO 올스타전에 총 15회에 걸쳐 선정되고 2010년 은퇴 당시 프로야구 통산 최다 홈런, 최다안타 등 도록을 제외한 타격 전부문(8개)에서 최다기록을 보유한 양준혁 전 프로선수 등 총 10명이다.



지난 6월 9일 ‘U+5G 사회인 야구대회’의 본선행 사로 진행된 원포인트 레슨. /LG유플러스

이번 레슨에서는 U+프로야구의 핵심 서비스인 ‘홈밀착 영상’ 기능을 체험해볼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

오늘의 운세 9월 18일 (음 8월 20일)



36년생 중여는 신중하게 결정. 48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60년생 그리운 사람을 만나 기분 좋은 하루. 72년생 비가 와도 밖에 나갈 일이 없으면 우산은 필요 없다. 84년생 쓰는 공덕으로 재물이 들어온다.



37년생 자식들의 방문으로 당황할 일이 있다. 49년생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빛. 61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어 일을 추진. 73년생 격한 말로 상대를 흥분하게 한다. 85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중.



38년생 중심을 잘 잡아야 분란이 없다. 50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운이 활짝 열린다. 62년생 생각을 바꾸면 해답이 보인다. 74년생 공돌인 탐은 쉽게 무너지 않는다. 86년생 심신이 고달프나 금전 운은 있어서 다행이다.



39년생 깊게 담아 두지 말고 가볍게 생각. 51년생 필요 없는 사람만 잔뜩 모여 시끄럽다. 63년생 자신을 이겨야만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다. 75년생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분풀이 할 듯. 87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불편.



40년생 제살이 아프면 남의 살도 아픈 법. 52년생 약속이 겹칠 수 있으니 반드시 메모. 64년생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수선해 놔야 한다. 76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절망은 금물. 88년생 자존감은 나를 지켜 주는 힘.



41년생 사소한 실수로 원망을 듣겠다. 53년생 모래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65년생 유쾌 성쾌 통쾌한 하루. 77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특히 친구와의 대화에 주의. 89년생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상책.



42년생 진실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54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나 건강에 신경 써라. 66년생 고복에 꽃이 피어나니 좋은 일이 있다. 78년생 삶의 중심에서 신용을 지키자. 90년생 만나는 즐거움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자.



43년생 내일 일은 내일 고민해도 된다. 55년생 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너무 동경하지 마라. 67년생 타이밍이 중요하니 빠른 결단이 필요. 79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여행을 나서는 것이 좋다. 91년생 든든한 후원자가 바로 앞에 있다.



44년생 남들 이목에 신경 쓰지 마라. 56년생 순풍에 뒷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68년생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 사회생활이 힘들다. 80년생 투기인지 투자인지 잘 판단해라. 92년생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다.



45년생 마음을 좋게 먹어야 적이 없다. 57년생 불이 나도 가까운 곳의 물로 끄야 한다. 69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 하라. 81년생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신중하게. 93년생 미래를 위해 일하고 좀 더 노력.



46년생 세월은 기억을 빼앗는 대신 통찰력을 준다. 58년생 친구를 위해 거짓 말을 하게 된다. 70년생 좋은 재물취득의 정보를 얻는다. 82년생 산토끼 잡으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94년생 때를 위해 시간을 두고 기다리자.



47년생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59년생 문서나 계약서상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라. 71년생 윗사람의 총고는 수용하는 게 신상에 유리. 83년생 사문한 감정은 가족에게 들기지 않게. 95년생 새로운 일에 과감히 도전.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텀뿌!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1			5		
2	5					9	6	
		4			3			
			1	8				
8			3					1
		2	9	4				
		3	2		1			
7	1		6			4	5	5
4			5			8	8	8

	2				6			
		4				7		
			8	6				1
				9	6			
9				8	6			
				7	4			
				6	3			
1		5	3	4	7	2		
				9	8	3		

스도쿠 정답								
9	4	6	7	5	1	2	8	3
7	1	2	8	6	3	9	4	5
5	8	3	2	9	1	6	7	
1	6	7	2	9	4	5	3	8
8	2	9	5	3	6	4	7	1
4	3	5	1	7	8	6	2	9
6	5	1	3	4	7	8	9	6
2	5	1	4	7	8	9	6	3
3	9	8	6	1	2	7	5	4

문제 제공=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막아야



기자 수첩

박 인웅

(유통&라이프부)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한 농장은 비교적 시설이 잘 갖춰진 농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축사는 창문이 없이 밀폐되고 있고,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쓰지 않는 곳이다. 아울러 야생멧돼지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가 쳐져 있고, 농장을 관리하는 농장주와 직원 5명은 올해 국외 여행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경기 파주시 한 데지농장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로 확진했다. 해당 농장은 2450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이었다.

추석 연휴 기간 어미 돼지 5마리가 고열로 폐사하자 농장주는 전날 오후 6시께 방역 당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를 했다. 이후 경기도 위생시험소가 축방역관이 시료를 채취,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한 결과 폐사한 5마리 중 2마리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과 농장주가 족이 운영하는 농장 2곳의 돼지 3950마리에 대해 시료 채취하고 살처분을 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된 감염원은 감염된 돼지 및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돈농가 관계자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 방역 및 소독을 철저하는 한편 종사자 간의 직접적 교류를 자제하는 등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아야 할 것이다.

/parkiu7854@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운명론

인생을 잘 살았는지 아닌지는 죽는 순간이나 결론 내릴 수 있는 일이다. 아무리 부자 부모를 만나 살더라도 유산을 불리지는 못할 망정 훌따 까먹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경우는 어린 나이에 이름을 날려서 소년급제를 부리워하지 말라는 속담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청장년과 중년 시절까지 계속 호시절이 이어지는 경우도 쉽지 않을뿐더러 고독한 말년을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참으로 복덕의 많고 적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주팔자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듯이 인생은 정해진 사주팔자의 원칙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원래 사주팔자는 숙명론이면서 운명론이다. 움직일 수 없는 어떤 불가침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말이다. 사주명조를 이루는 여덟 글자는 기본적으로 내가 쌓아온 업적으로 인해 굳어진 개개인의 성향과 에너지를 상징적으로 표기한 합죽 의미들이다. 내가 오랜 생동안 구축해온 세상을 살아나가는 나의 기본 복력의 체력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 기본체를 가지고 역시 연월일시로 변화해가는 에너지의 흐름에 어떻게 반응해나가는가 하는 일종의 화학적 작용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소상공인 기본법 9월 국회서 제정을”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

“연초 법 통과 약속… 논의 안해
소상공인·서민 외면 병폐 극명”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될 9월 국회 내에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9월 국회에서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지연된다면 총선의 회오리 속에 법 제정은 또다시 뒤로 밀리고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염원 이자 우리 사회의 시대적 사명”이라며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여야 5당 대표가 한 목소리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

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 이를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의 현실은 정쟁을 우선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서민을 외면하는 우리 정치의 병폐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법안의 방향으로는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은 5인 미만까지, 제조업 등은 10인 미만까지 새로운 경제 주체로 규정해 기존의 정책과 차별화된 체계적인 소상공인 전문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영업도 이 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경제학자들도 (자영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힘들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연합회는 “정치권은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소상공인 최우선 현안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네번째)이 17일 서울 서대문 NH농협은행을 찾아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기문 회장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중기중앙회-농협중앙회, MOU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기문 회장이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중기중앙회 임직원들과 서울 서대문에 있는 NH농협은행을 찾아 직접 가입서를 작성했다.

필승코리아 펀드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서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출시된 상품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인과 농업인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

회와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중기중앙회는 필승코리아 펀드의 가입 확산과 중소기업계의 참여를 위해 펀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 정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응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펀드에 가입했다”면서 “앞으로도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앞장서고, 중소기업계가 힘을 모아 어려운 상황을 극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중진공, 태국에 ‘기술교류센터’ 개소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태국 현지 기업의 활발한 기술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한·태국 기술교류센터’의 문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기술교류센터란 양국 정부 간 협의로 현지 정부기관 내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현재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란, 페루, 인도 등 5개국에 설치

해 각 나라의 기업과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태국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진행한 개소식에는 김현태 중진공 부이사장, 팔라린 엠찐다 태국 중소기업 진흥청 부청장, 현지 진출 중소벤처 기업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기술교류센터 설립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승호 기자

도로公, 1000억 방글라 대교 수주 눈앞

10년간 파드마대교 운영·관리
이르면 연내 본계약 체결할 듯

한국도로공사가 향후 10년간 1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방글라데시 파드마대교 운영·관리 사업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2일 방글라데시 교량청(BBA)과 ‘파드마대교 운영·유지관리 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BBA에 파드마대교 운영·유지관리 사업자로 한국도로공사를 공식 추천해 진행됐다.

이 협약에 따라 도로공사에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 사업 수주를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도로공사는 이르면 연내 본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업소 요금징수, 도로·구조물 유지보수, 순찰·재난관리 등 파드마대교의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0년간 약



방글라데시 칸드케르 안와를 이슬람 BBA청장(왼쪽)과 신용석 한국도로공사 해외사업처장이 MOU 체결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10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파드마대교는 상층부 4차로 도로와 하층부 철도로 구성된 복층트러스교량으로, 총연장 6.15km에 달하는 방글라데시 최대 특수교량이다.

파드마대교 건설공사는 2014년 시작됐으며 현재 75%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총사업비는 3조원 규모로 방글라데시 최대 토목사업으로 꼽힌다.

건설 시공은 중국 건설사가 맡았고, 한국도로공사는 건설현장 시공·감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발주청인 BBA는 한국도로공사가 깊이 110m 이상인 연약지반 환경과 우기에 강이 범람하는 등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고 공정주진을 원활히 이끄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용석 도로공사 해외사업처장은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 경험과 방글라데시 교통 인프라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보, 인니·말련에 기술평가시스템 전수

현지서 보증기관 임직원 대상
금융지원방법 등 설명회 열어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1일과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양국 보증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KTRS)과 이를 활용한 금융지원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보는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인니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해 KTRS(Kibo Technology Rating System)와 KTRS를 활용한 금융지원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신용보증공사(Perum Jamkrindo) 임직원들과 향후 업무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쿠알라룸푸르에선 말레이시아 신용보증공사(CGCMB)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KTRS를 통한 평가절차와 금융지원방법,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기업 인증과 같은 기술평가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업무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기보는 이들 신남방국가를 대상으



기술보증기금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신용보증공사 본사에서 현지 보증 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가 끝난 후 (왼쪽 세번째부터) 조규대 기보 전무이사, 아민 마수디 인도네시아 신용보증공사 상무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 KTRS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해외진출보증 지원 등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거점을 확보해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 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보 조규대 전무는 “기보는 2015년부터 기획재정부의 경제발전경험공유 프로그램(KSP)을 통해 태국과 베트남

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페루에도 KTRS를 전수했다”면서 “니아가 EC(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추진하는 유럽형 기술평가서비스 플랫폼인 ‘이노레이트’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KTRS를 전수해 해외 기술평가시장을 적극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박람회 내일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과 ‘2019 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9일 서울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개최하는 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박람회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 등 우수 혁신기업 100곳이 참여해 인재를 찾는다.

동운아나테, 그린코스, 라파스, 펍지 등 서울 소재 혁신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엔에프테크놀러지스, 캠시스, 이

루다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글로벌 수출기업들도 함께한다.

분야별로는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 개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 웹기반의 3D모델러 개발, 디스플레이 기구 설계, 국내·해외 영업, 회로 설계 등의 채용분야에서 약 250여명의 R&D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R&D잡콘서트, 원스톱 취업준비관, 취업정보알림관 등 박람회에 찾아오는 구직자들의 구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대행사를
마련할 예정
이다.

박영숙 서울지방중기청 장은 “이번 행사는 전국에 우수한 혁신 기업들을 참여시켜 구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청은 중소기업의 인식개선 및 기업의 인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Enerbooster
LABORATORY SPOMETICS

카 카 오 톡 친 구 추 가 하 면

TALK

샘플 무료 증정!

“ 빠르하고 쉽게 뭉치는 ”
지친 내 몸을 위한 마사지 크림

배구여제 김연경의 추천! *

Warming up & Recovery cream



빠른
온열 효과



빠른
흡수



오랜
지속 시간



피로부위
릴렉싱



산뜻한 향



바디 슬리밍



Enerbooster

10

#온열효과 #특허원료 #슬리밍 #마사지크림



샘플
신청
방법

TALK

카카오톡을 실행합니다.

Q

친구리스트에서 맨 위 확대경 모양을 누릅니다.

+

“액티브라이프”를 입력하여 친구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

안내에 따라 무료 샘플을 신청합니다.



1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김도형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이 희생자 묘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청, 원형을 넘어 복원할 것”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단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이 본격화한 가운데 김도형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은 17일 “원형 이상의 복원, 원형을 넘어서는 복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도청 건물 훼손에 반발해 농성 투쟁을 해온 5월 어머니회원들과 함께 희생자 묘역을 참배하고 이같이 말했다.

참배를 마친 김 단장은 “민주화로 가는 현대사에서 빼아픈 장소”라며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옛 전남도청을 의미 있는 장소로 잘 복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옛 전남도청이 민주주의의 성지로서 국민들의 뇌리에 영원히 기

억될 수 있는 장소로 복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2022년 7월 31일까지 옛 전남도청 본관, 별관, 회의실과 전남 경찰청 본관, 민원실, 상무관 등 건물 6개 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1980년 당시 모습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원형 복원을 요구하며 3년간 농성을 이어온 5월 어머니회 등 옛 전남도청복원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농성 중단을 선언하고 복원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복원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광주=차정준 기자

인천시, 법인택시와 손잡고 청결 점검

28일까지 12일간 진행

이다.

점검 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과 계도조치를 하고,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개인택시 8,983대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난 5월과 6월에 실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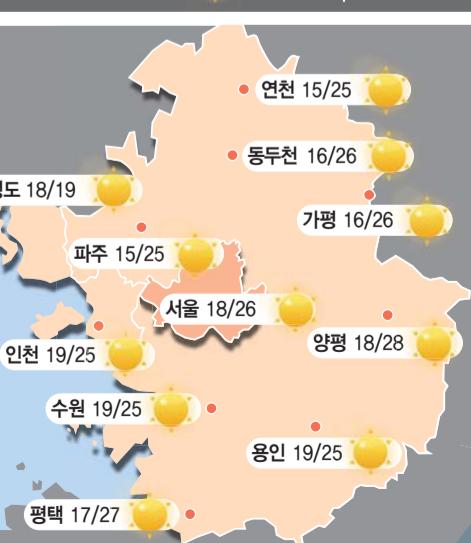
서재희 택시화물과장은 “이번 법인 택시 일제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

인천시가 인천법인택시운송사업 조합과 협동으로 차량 청결상태 및 차량의무 표시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법인택시 전체 5385대를 대상으로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업체 주사무소 차고지에서 자체점검과 방문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시는 차량 내·외부 청결상태(불법 부착물 정비 등), 부제표시, 택시자격증명, 교통 불편스티커 등 부착여부, 안전벨트 작동 여부, 택시미터기 관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

오늘의 날씨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광주·전남, 공무 중 다친 경찰 증가

광주 11%, 전남 38% 나란히 ↑ 범인에게 피습당한 경찰관 급증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근무 중 다친 (공상) 경찰공무원 수가 지난해 나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안정치연대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이 분석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남 경찰관의 지난해 공상자는 110명으로, 2017년 81명과 비교해 35.8% 늘었다.

특히 범인으로부터 피습을 당한 경우가 2017년 11명에서 2018년 25명으로 127.3%나 급증했다.

교통사고는 12.9%, 안전사고는 23.7% 각각 늘었다.

광주는 지난해 경찰관 공상자가 99명을 기록, 전년 대비 11.2% 늘었다.

광주도 범인피습으로 발생한 공상자가 2017년 16명에서 2018년 27명으로 68.8%가량 늘었고, 안전사고는 31.6%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공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은 2016년 1858명에서 2017년 1천 604명으로 감소했지만, 2018년 다시 15.8% 증가해 1736명을 기록했다.

주로 범인 피습에 의한 공상이 늘어 2017년과 비교해 지난해 15.8% 증가했다.

경찰은 범인 진압을 위해 전국적으로 1만1000정에 달하는 테이저건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 빈도는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이저건은 2016년 전국에서 433건 사용됐지만 2017년 379건, 2018년 338

건으로 점차 그 빈도가 줄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137건만 사용됐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10건, 전남에서는 16건 사용되는 데에 그쳤다.

정 의원은 “범인피습 등에 의해 다치는 경찰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용의자의 폭력으로부터 경찰의 안전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범인 진압이 가능하도록 경찰관 개인의 책임을 줄여 주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현장 상황에 따라 5단계에 걸쳐 물리력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정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광주,전남=차정준 기자 cc6311@metroseoul.co.kr

진주 물난리 피해도로 몇년째 ‘나몰라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복구 뒷짐 빗물 처리 배수로 시설 설치 안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기관인 진주국토관리사무소가 도로변 물난리를 겪은 지역에 몇 해째 피해가 되풀이 되는데도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하지 않고 나몰라라 식으로 대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마산에서 진주 방향으로 이어지는 국도 2호선은 4차선 도로이다. 이 구간 중 진성면에서 한국국제대학교으로 넘어가는 진성 고갯길 도로변 일대는 비가 많이 내리면 물이 충분히 빠지도록 배수로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도로에 고이는 빗물이 원활하게 빠지지 않아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내리막길 중간중간 배수로가 부족해 폭우가 내릴 경우 도로의 빗물이 주변 공장과 마을 등으로 흘러 넘쳐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태풍이 번갈아 휩쓸고 지나간지 1개



진성 고갯길 도로변 일대.

월가량이 흘렀지만 이 지역에는 아직도 복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이 있다.

실제 큰 비만 내리면 2호선 도로와 비탈면 지역에 흘러내린 물이 도로를 따라 도로옆 공장 차고지로 흘러들면서 한때 업무가 마비되고 차량 운행을 못할 정도로 공장안 출입구 내리막길에 깊은 물이 차운 자갈과 석분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공장 측에서는 2호선 도로 물이 넘쳐 들어오지 않게 사비를 들여 블록을 쌓고 도로 턱을 높이고 하였으나 빗물이 공장 쪽으로 유입되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도로변에 배수관 시설이 부족해, 비만 오면 이 지역에 배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다.

이에 진주국토관리사무소는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조사와 피해대책을 마련했으나 내년에 배수로 공사를 할 예정이라는 등 공장안 피해도로 원상복구는 예산 탓만하며 ‘나몰라라’하고 있다. /경남=이경화 기자 7470002@

GS리테일, 국내 1호 RMHC하우스 열어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부지>

GS리테일은 17일 경남 양산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부지 내 국내 1호 RMHC하우스(Ronald McDonald House Charities Korea, 로날드 맥도널드 하우스 채러티 코리아) 오픈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픈식은 김종수 GS리테일 MD본부 전무를 비롯해 제프리 존스 R MHC코리아 회장, 김일권 양산시장,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남 양산에 국내 1호로 오픈한 RMHC하우스는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중증 질환으로 오랜 기간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쉼터다.

GS리테일은 지난해 9월 RMHC코리아와 5개 파트너사(동원F&B, 롯데칠성, 롯데제과, 롯데푸드, LG생활건강)와 손잡고 각각 유제품, 음료, 과자, 냉동식품, 위생용품 카테고리에서 10여 개의 차별화 나눔상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며 해당 상품 매출액의 1%를 RMHC코리아에 기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지난 1년간 전국 30여개의 GS 25, GS THE FRESH, 틸라블라 매장에서 동전없이 모금 가능한 전자모금 함 ‘디지털 코인박스’를 통해 모은 기부금액까지 더해 연말까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을 기부할 예정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광주전남중기청

기술개발자금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수입의존도가 높고 수입대체가 어려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장 수요, 대일 의존도, 중소기업 적합성, 수입대체 가능성 등을 선별기준으로 하고, 심층평가와 대면평가를 거쳐 업체당 2년간 6억 원 이내에서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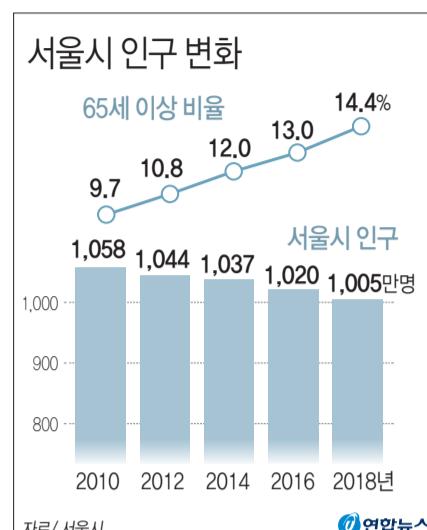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차정준 기자

서울시, 고령사회 진입… 인구 10명 중 1명 ‘65세 이상’

내년 서울 인구수 1000만도 무너져 내국인 수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 외국인 수 28.4만 23년간 6배 증가 인구 자연증가 26년만에 91% 급감

서울시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시민 10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고령사회에 처음 진입했으며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 인구 천만 선이 붕괴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시 전체 인구는 1004만9607명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시에 등록된 내국인 976만 5623명과 외국인 28만3984명을 합한 숫자다.



서울 인구 중 내국인 수는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

은 1995년 4만5000여명에서 지난해 28만4000여명으로 23년간 6배 이상 늘었다.

시는 “최근 3년간 순전출 인구(전출자 수-전입자 수)가 평균 8만명 이상인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면 서울시 등록인구가 1000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줄어든 이유는 ‘경기도 지역으로 이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도로 간 사람은 36만8536명, 경기도에서 서울로 온 인구는 23만3320명으로 순전출은 13만5216명이었다. 서울로 순전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도(2만5321명)였다.

시가 서울의 인구 감소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39.6%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부정적’은 37.9%, ‘긍정적’은 22.5%였다. 인구 감소로 좋아지는 분야로는 자연환경(44.7%)과 주거(43.1%), 나빠지는 분야로는 사회(60.9%)와 복지(59.4%) 등을 꼽았다.

지난해 서울 인구 중 노인은 141만 297명으로 전체의 14.4%를 차지하면서 ‘고령사회’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시는 지난 2005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현재 추세라면 2026년 이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늘고 14세 이하 인구는 줄어들면서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비는 1998~2013년 31%대를 유지하다가 점차 오르기 시작해 2018년 34.1%를 기록했다.

출생자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의 자연증가는 1992년 14만5000여명에서 지난해 1만3000여명으로 26년 만에 91% 급감했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급격한 인구변화에 따라 행정수요도 가파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면밀한 분석을 실시해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빈집이 희망 보금자리로… 재생사업 ‘시동’

임대주택·주민시설로 활용

서울 내 빈집이 약 3000호 가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단전·단수된 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2940호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총 주택의 0.1% 수준이다.

빈집의 78%(2293호)는 단독주택이었다. 다세대주택이 371호, 아파트가 190호, 연립주택이 86호였다. 철거가 필요한 노후 불량 주택은 1577호였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348호)와 종로

구(318호)에 빈집이 많았다. 이어 노원구(253호), 서대문구(187호), 성북구(184호), 강북구(180호), 강동구(146호), 은평구(140호) 순이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신축·개조 후 임대주택이나 주민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사들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자치구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김현정 기자



완연한 가을날을 사진으로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한남2구역 재개발 속도 올라간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2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일대 지형과 길을 보전하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및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 최고 높이

를 남산 소월길 기준인 해발 90m 이하로 계획해 남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이태원 관광특구 일부 지역과 보광초등학교를 구역에서 배제하고 보전 가치가 있는 이태원 성당은 구역에 남기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보행환경과 주차공간이 열악한 앤틱가구거리는 10명의 건축가가 3개의 구역으로 나눠 새로운 변화에 어울리는 공간으로 재생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소규모 민간 건축물 2만6000여동 실태 조사

자치구 공무원·외부전문가 합동 진행

서울시는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해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15층 이하 건축물 2만6000여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공동주택 1만7386건, 종교·집회시설 5007건, 중대형 건물 3522건 등 총 2만5915건이다. 강남구가 24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1889건), 노원구(1688건), 송파구(1445건), 강서구(1442건)가 뒤를 이었다.

제3종시설물이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 중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소규모 건물을 말한다. 1종(21층), 2종(16층)보다 상

대적으로 작은 건축물이다.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매년 2~3회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시설물 관리대장과 준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내년 6월까지 자치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점검항목 조사, 육안검사가 이뤄지고 필요할 경우 안전점검 장비가 활용된다.

시는 건축물 안전상태를 3단계(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로 구분하고 ‘지정검토’로 판정되면 자치구 자문위원회 자문·검토를 거쳐 제3종시설물로 지정한다.

이번에 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의 소유주나 관리자는 다음 반기까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구는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A~E등급)을 평가하고 등급을 기준으로 매년 2~3회 정기안전점검을 한다.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는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과 준공도면을 제출하고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해야 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과거 용산 상가 붕괴, 대종빌딩 기둥 균열 등 민간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민간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이번 실태조사는 꼭 필요한 과정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산업]
허창수의 현장경영
LNG밸류체인 구축
발전산업 고도화

06

[라이프]
신세계百 분더샵
英 왕실백화점에
'K-패션' 깃발

L1



제과점 사업 좌절 딛고 후배 양성 교수로 새길 “실패가 곧 자산…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죠”



메이필드호텔스쿨
윤태원 교수

“잘 뽑고, 잘 가르치고, 잘 내보내자’는 어느 교수님의 말씀처럼 저 역시 취업한 학생들이 찾아올 때면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럴 때마다 더 자상한 선생이 돼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변수 많은 우리네 인생이지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기에 한 번쯤 살아 볼만하다.

메이필드호텔스쿨에서 후배 양성에 힘을 쏟고 있는 윤태원 교수는 ‘늦깎이’다. 아이가 둘이나 태어나고서야 호텔업계에 발을 들였지만, 눈 깜짝할 새 세월이 흘렀다.

제과점 사장에서 일류 호텔의 셰프로, 그리고 이젠 교수로 명쾌가 달라졌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군 입대를 했습니다. 하사관으로 5년 6개월간 복무를 하고 전역하니 전공인 전자 산업은 너무 빨리 변해 사람이 하는 일이 거의 없더군요. 취업이 돼도 낮은 연봉으로 생활하기 힘들었습니다.”

제빵에 눈을 뜯 건 아이러니하게도 운영 하던 제과점을 실패하면서부터다. 지인이 운영하던 제과점을 인수해 뺑이라는 생소한 분야에 무턱대고 뛰어들었는데 제빵 기술이 없어 운영이 쉽지 않았다.

윤 교수는 “기술이 없어서 큰 제과점의 뺑과 케이크를 받아 판매를 하다보니 이윤이 남지 않았다. 재고가 생기면 고스란히 적자로 이어졌다”고 회상했다.

제빵 기술을 배워보려니 나이가 발복을 잡았다. “제빵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느껴서 마음을 먹고 제과점에 부탁했더니 ‘나이가 많아 곤란하다’며 거절당했습니다. 2년 정도가 지나서야 사장님께서 기술 전수를 허락해주시더군요.”

잘 배운 제빵 기술은 호텔업계로 가는 토대가 됐다. 물론 쉽진 않았다. 두 아이를 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한 가지 선택도 신중할 수밖에 없었을 테다. 서울 올림픽이 있던 1988년의 일이다.

“당시에 올림픽이 열리면서 서울에 많은 호텔들이 들어섰습니다. 인력 모집도 많았는데, 지인의 소개로 호텔에서 처음 근무하게 됐습니다. 올림픽 전에는 호텔 입사가 쉽지 않았고, 두 아이의 아빠로서 서울 생활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입사를 결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호텔에 들어가서도 고난의 연속이었다. 낯선 외국어로 인해 고생도 꽤나 했다. 윤 교수는 “당시 스위스그랜드호텔이라는 특 1급 호텔은 외국인 셰프들이 많아 영어로 소통을 해야했다”며 “외국어가 능숙하지 않아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생겼다. 극복해야겠단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나만의 사전 만들기’다. 그는 “작은 공책에 영어, 독일어, 프



윤태원 메이필드호텔스쿨 교수.

/메이필드호텔스쿨

제과점 운영하며 제빵기술 배워 1988년 서울올림픽 때 호텔 입성

각종 국제대회서 실력 인정받아 팀 ‘수라’ 만들어 대회 특성 기록 교수직 3년째… 후배 양성 앞장

랑스어 3개국 단어장을 만들어 몇 백 번 이상 써가며 암기를 했다”면서 “요즘도 후배들이나 학생들에게 외국어 한 가지는 꼭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랜드 힐튼 호텔에선 28년간 근무했다. 제과점 겸 R&D 팀장으로 근무하며 ‘셰프 윤태원’의 길을 갈고 닦았다.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빨리 시작한 아침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보통 팀장은 9시에 출근하지만 저는 새벽 6시에 출근해 후배들과 같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각 영업장에 있는 음식을 확인하는 것이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 이었죠.”

책임자의 자리에 앉아서도 분주히 움직였다.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해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 받았다. 그러면서도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때면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윤 교수는 “첫 대회는 국가대표로 선정된 선배를 도왔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1996년 독일에서 열리는 요리 올림픽에도 우미로 나서면서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2008년 독일 요리 올림픽 주전 선수로 발탁됐던 때가 기억납니다. 당시 구제역으로 모든 식재료 반입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갔던 터라 한국에서 가지고 간 식재료가 통관이 되지 않아 새로 구매를 해야 했습니다. 대형마트로 곧장 달려가 식

재료를 구매했죠. 이후 이런 상황이 되풀이 돼선 안 된다는 생각에 후배들과 함께 팀 ‘수라’를 만들었습니다.”

윤 교수는 만든 팀 ‘수라’는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는 요리 대회의 특성과 주의할 점, 숙소, 현지 주방 이용 등의 세세한 것들을 기록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기준으로 5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메이필드호텔스쿨 강단에 선 지는 3년 째다. 지난 2016년 후배의 추천으로 이곳에 와 호텔에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호텔의 생활은 예측불가능한 상황의 연속이라 항상 긴장하며 근무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 못지 않게 공부도 하고 외식산업 트렌드 이해, 관련 산업 현장 방문, 취업처 발굴 등을 진행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호텔업계에 30여년 간 발 담그고 있었기에 호텔 인재를 양성하는 이곳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윤 교수에겐 천직이다. 그는 “국내 최초로 특급 호텔이 운영하는 학교인 만큼 자부심이 있다. 또 호텔에서 운영하는 학교라 입학생에 대한 지원도 많다”며 “교과 과정부터 취업까지 호텔 취업을 1순위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국내 유수의 호텔에 많은 졸업생들이 입사했다. 차별성이 분명한 학교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늘 학생들에게 “인생을 즐기며 살라”고 조언한다. 강단에 선 지금을 감사하고, 정해지지 않은 앞으로를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이유일 테다. 2007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클렘린 국제 요리대회가 윤 교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이때만 해도 국내 요리계는 ‘누가

많이 입상했느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국가대표 선발 기준도 입상을 기준으로 점수를 환산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출신의 나이 많은 셰프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셰프는 참가 종사만 받고도 큰 시상대에서 칸소네를 부르며 즐거워했습니다. ‘즐겁게 요리를 해야 결과물도 만족스럽게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결과에 만족해 노래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는 후배들에게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라고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